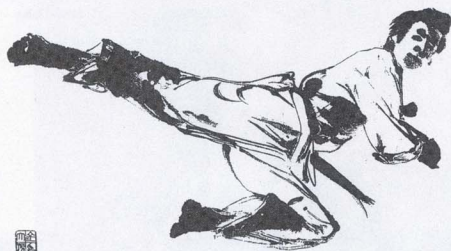


태권도 남북교류 구체화



남북 태권도가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11월 미국에서 만난다.
남북의 태권도 시범단은 미국의 교민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대회를 갖게 된다.
이번 남북시범 대회는 남북 체육교류의 성공적 추진에 일조하고 남북태권도인의 직접 교류 촉진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을 방문한 재브라질 태권도 사범인 이백수재브라질대한체육회회장은 북한측에서 태권도 통합을 위해 남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남북태권도 교류는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분단46년만에 첫 남·북 태권도 시범대회

민속무예에서 세계적인 현대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가 민족 분단 46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남북 태권도교류를 갖게 되었다.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미국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및 로스앤젤레스 등 교민 밀집지역에서 남과 북의 시범단이 경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북태권도교류의 첫번째 장이 될 이번 시범경연대회는 미국의 「태권도타임즈」 발행인인 정우진씨의 중재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협회는 민족 동질성 강화와 남북태권도인의 직접교류 촉진의 계기로 삼고자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번 대회에 북측에서는 조선태권도연맹 부위원장인 정재훈씨를 단장으로 한 11명의 성인시범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우리는 홍중수 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미동국교 국가대표 시범단 20명등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키로 하였다.

북측의 성인시범단에 대해 우리가 어린이시범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첫번째 교류사업에서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 아닌 화해의 마당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대회는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국내의 동포의 폭넓은 지지획득과 향후 원활한 남북체육협상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경기대회의 남북한 태권도선수의 동시참가에 앞서 오랜 분단으로 인한 기술·용어·조직 등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범 경연대회의 빈번한 교류개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으며, 이번 미국에서의 남북태권도교류에 뒤이어 적극적인 상호 방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단 명단

- ▲ 단 장 : 홍중수(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 지도사범 : 이규형(미동국민학교 사범)
- ▲ 주 무 : 이 봉(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 ▲ 시범단원 :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

이희승 유동원 이형길 김지훈 신동수 간명기 최동훈 장문영 이경남 한동진
이주현 윤영택 안청명 김종성 신장우 황규정 최건영 나성주 윤호영 양성열

북한, 태권도 통합위해 남한과 대화할 의사 밝혀

방북 이백수 재브라질대한체육회 회장이 북한측 의사 전달



▲ 차병욱 조선태권도위원장(좌)과 이백수 회장(우)

조선태권도위원회는 남북 태권도의 통합을 위해 우선 품새, 용어, 규칙 등의 통일을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와 오는 11월에 브라질에서 회동할 의사가 있음을 이백수회장을 통해 알려 왔다.

이백수회장은 지난 9월 브라질 교포 축구팀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북한태권도위원회의 차병욱위원장과 정재훈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북한의 입장과 함께 이러한 북한측 의사를 체육청소년부와 대한태권도협회측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백수회장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이다.

—북한에 가계된 동기 및 북한에서의 일정은

브라질 체육회에서는 외국 이민사 100년, 분단

46년만에 북한과 최초의 교류로 브라질 동포 축구선수단 32명이 평양을 방문해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브라질 교포 선수단은 8월 31일에 평양에 도착, 9월 7일까지 7박 8일간 체류하였다.

—조선태권도위원회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 민족의 무예인 태권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하여 안타까움이 컸다. 그래서 해외 영접부 김선옥 부부장에게 조선태권도위원회 임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해서 9월 5일 저녁에 조선태권도위원회 차병욱위원장과 정재훈 부위원장을 고려호텔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게되어 이 자리에서 태권도의 통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남북 통일에 앞서 민족고유의 무도인 태권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하느냐는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이에 조선태권도 위원회측은 태권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 태권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품새 및 용어, 규칙 등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태권도 통합을 위한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남한의 체육청소년부와 대한태권도협회측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백수회장께서 구체적인 태권도통합을 위해 북한측에 오는 11월에 브라질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간 이야기는

조선태권도위원회 정재훈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권도 선수단이 오는 11월에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등 중남미지역에 파견되어 그곳의 한국 동포들과 태권도 교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남북의 태권도 관계자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태권도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의 최고 결정권자인 회장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차병욱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대한태권도협회의 최세창회장이 참석하도록 내가 주선 하겠다고 하였다.

조선태권도위원회측에서는 이미 정재훈부위원장이 순회시범단 단장으로 결정되어 있다며 차병욱위원장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태권도 수련하는 것을 보았는가

정재훈부위원장의 안내로 태권도 시범을 보았는데 용어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시합에서는 득점을 주는 방식이 달랐다. 태권도 기량면에서 볼 때 품새는 북한측이 월등하고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되었다고 보며 남한 측은 겨루기면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품새와 남한의 겨루기가 통합된다면 태권도는 보다 발전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태권도 현황은

현재 평양의 청춘거리에 내년 9월에 개최될 ITF 제8차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위해 우리의 국기원과 같은 태권도 중앙도장을 짓고 있었다.

북한에는 현재 약 7만의 태권도 수련자가 있다고 한다. 북한체제에서 취미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선수위주로 태권도를 양성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체육분야에 공이 큰 선수에게 인민체육인, 영웅체육인의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I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3연승을 한 태권도 선수 한명이 영웅체육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처럼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엘리트선수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북한의 태권도 시범을 본후 정재훈 부위원장에게 선물을 증정.



▲ 재브라질체육회 임원들과 함께한 차병욱 위원장(중간) 정재훈 부위원장(왼쪽끝).

-향후 남북태권도교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남북 분단의 역사는 46년이지만 사상과 제도에 있어서는 460년이나 흐른것 같은 분단의 골이 깊다는 느낌이다. 말과 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외국과도 모든 면에서 교류가 활발한데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한 민족이 이렇게도 만나기가 어려운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

쉽게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것 이라고 본다.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희생과 양보로 타협해 나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금은 남북체육회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남북체육회담의 의제로 태권도 교류가 채택되고 있는 시점이라 남북태권도 통합을 위한 태권도 관계자들의 교류를 낙관적으로 기대해 본다.

태권

태권도 현황 파악 및 태권도인의 다양한 의견 정취

지난 1월에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5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세창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2월 서울시협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 3개 연맹까지 산하 지부 및 연맹을 방문하고 태권도 현황과 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최회장은 시도지부 및 연맹 방문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태권도의 내실화 작업은 어느 개개인만의 능력만이 아니라 화합과 일치단결만이 유일한 키(key)"라고 강조했다.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는 회장의 방문을 맞아 협회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밝히는 한편 태권도가 풀어야 할 여러 숙제들을 제시했는데 주요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도협회의 주요 건의사항

가. 시도지부 보조금 증액-서울을 비롯한 전남, 전북협회에서는 지방 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행정 보조비 및 전무이사 활동비를 증액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회장은 협회의 예산 규모상 당장의 증액은 어려우나 향후 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나. 협회장기 대회에 대학 일반부 분리 요망-춘성군청 및 횡성군청에 태권도 실업팀을 두고 있는 강원도 협회에서는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적어 실업팀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부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단체전 경기로는 대통령기 대회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 협회장기 대회에서 대학 일반부를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91년도부터 협회장기대회에서 대학 일반부를 분리 실시하기로 했음을 밝히며 시도지부별로 실업팀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다. 전국체전 여자부 신설 및 소년체전 국민학교부 신설요망-이는 전국 시도협회의 공통사항이라 할만큼 요청의 소리가 높았다.

협회에서는 87년 이후 여자 태권도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종목으로 채택, 신설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여자 태권도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여자 대표팀은 최근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여자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대회에 여자부를 증설함으로써 각 시도에서 여자부를 제도적으로 육성토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학생들만이 참가하고



있는 소년체전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국민학교 수련생들의 참가도모를 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라. 경기장 질서 확립-시,도의 과열 경쟁으로 고질적인 질서문란행위가 계속되어온 전국체전의 경기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협회에서는 경기, 심판, 상벌 등 질서문란의 동기유발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태권도 경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장 질서의 문란 행위자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고 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을 보인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 연맹 심사권 부여 요망-국교, 중교, 대학연맹 등 3개연맹에서는 시도협회만이 갖고 있는 심사권이 학생연맹에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수도권 지역만이라고 우선적으로 심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에서는 학교연맹의 성격상 전국 규모대회를 주관하는

순수 경기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회에서는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 기타-제주도협회에서는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희망했다.

그 밖에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지도자 교육의 활성화, 심판원의 소양교육 강화 등이 건의되었다.

시도지부와 연맹의 강력한 지원과 동참을 부탁하며

91년 벽두에 취임한 최세창회장은 이번 순방을 통하여 태권도의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태권도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기서 나온 여러가지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도협회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며 전 태권도인의 강력한 지원과 동참을 촉구했다. **태권**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체급당 2명으로 참가선수제한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더불어 제3회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남여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를 연마해온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들은 태권도 정신과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제화된 태권도의 기술발전과 우수선수배출 및 태권도인의 저변확대라는 중요한 과제속에서 치러진 본 대회에는 남고부가 560명 여고부에 172명 등 총732명이 출전했다.

제2회 대회때까지는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 모두가 출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대회부터는 절적인 향상을 고려하여 각 학교 선수 중 체급당 2명으로 참가를 제한하였다.

3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대회를 마치고보니 많은 어려움과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많았다.

태권도 경기는 객관화되고 보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게임 방식이 요청된다.

첫날 경기는 남고부 1번부터 236번까지 여고부 1번부터 44번까지 거의 32강과 16강이 부분적으로 가려지게 되었는데 관중석과 경기장은 벌써부터 승자와 패자를 떠난 응원과 함성 그리고 태권도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가고 있었다.

이날 처음 오후 4시10분경 첫날 경기가 막을 내리려할쯤에 송림고의 안홍엽 선수가 송도고의 박진석 선수를 맞아 1회 5점과 2회 초반까지 2점을 보태며 RSC승이 나왔는데 그 득점이 모두 앞돌려차기 몸통 6회, 얼굴 1회에서 나왔고 2번 이상이 받아차기에서 나왔다.

하지만 절대 승자는 없는 것, 승리한 선수 역시



김경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 대회준비에서 부터 마무리까지 애쓴 얼굴들.

4강에서 못내 좌절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경기에서 맛볼 수 있는 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렇게해서 오후5시경에 첫날 경기일정을 마치고 7월 2일 본 대회 둘째날이 되었다.

역시 09시부터 속행된 경기는 스탠드를 꽉 채운 응원단 만큼이나 한 여름에 무더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의 공간이 되었고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도 이 때쯤이면 힘들어하여 지쳐가는 시기였지만 잇따른 열띤 응원과 통쾌한 경기는 태권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약간은 거칠면서도 시원한 묘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 날에 남자부 경기는 237번에서 472번까지 또 12시 50분부터 시작된 여자부 경기는 45번에서 108번까지 진행됐고 중반으로 들어선 경기에서 우승후보로 지목받은 선수가 탈락하는가 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가 부상하는 등 또하나의 해프닝을 보이기도 하였다.

7월 3일 본 대회의 마지막날! 8강이 부분적으로 가려지고 4강과 준결승, 결승이 남았다. 승자와 패자들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태권도를 즐기는 태권도인의 정신이 돋보이는 이곳의 함성과 열기는 오후12시까지 준결승을 치루고 결승은 B코트를 사이로 A·C코트에 벌어졌다. 1분 30초였던

경기를 2분 3회전으로 치르는 결승은 지금까지의 피로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웃는 선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승전에서의 화이팅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어느 대회보다도 월등했고 결국 플라이급과 웰터급에서 우승한 여수고가 남고부 종합 우승을 하고 여고부에서는 인천체고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남자 최우수 선수상은 여수고의 고재환선수가 여자 최우수선수상은 은광여고의 이송민선수에게 돌아갔다.

3일간의 짧았지만 길게도 느껴진 경기일정은 오후4시를 전후로 시상식과 함께 폐막식을 치루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고 선수 및 임직원들도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다음대회를 약속하는 모습들이었다.

이제는 내년 4회대회를 기억하며 3회대회에서 미비점이나 보완해야될 점을 제시하면서 끝으로 제3회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고교 태권도대회를 위해 몇날 몇일을 수고하신지 모르는 총장님을 비롯해 태권도학과 교수와 조교들 그리고 학회 임원들과 자원봉사를 맡아주신 분들의 적지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태한**

최초의 우승기는 송림고와 은광여고가 차지



▲ 메달을 걸어주는 체과대 고병득 학장.



진중의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대회창설의 의의

오늘날 세계속에 각광을 받고 있는 태권도는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태권도인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의 계승으로 발전되어 왔다.

태권도는 정신교육 및 신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인간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는 각종국제대회에서 뿌리깊은 내실의 기저를 확보하면서 특히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정식종목,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알찬 경기를 치룬바 있다.



▲ 남고부 시상식 1위 송림고, 2위 대전체고, 3위 인천체고·성동고

또한 다가오는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도 시범종목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외에도 태권도는 명실공히 세계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현대 스포츠로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무술이며 전통무도인 국기 태권도는 무술과 호신술 건강증진의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외양적인 팡창과 함께 한국은 종주국으로서 뒷받침 하여줄 선수와 지도자가 요청된다.

대한체육과학대학은 태권도 전반에 걸친 학문적인 연구기관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과 우수한 태권도인의 육성 및 지도자 육성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태권도를 연구 발전시키고자 1982년에 태권도학과를 최초로 설치하였다.

그동안 태권도학과에서는 유능한 태권도인의 배출 및 태권도의 과학적인 체계정립과 학문적인 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감으로써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 교육가치의 이상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에서는 학과 설치의 교육목표 이념아래 진취적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 태권도인의 주축이 되는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양적인 팡창 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회를 창설하였다.

통합4제급 토너먼트로 단체전 경기

△ 국기 태권도의 세계화속의 기저확립

△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도모

△ 상급학교 진학과 특기자 혜택 부여

△ 태권도인의 돈독한 우의교화와 우수선수선발

△ 균등한 실력평가의 기회부여

△ 무도 및 스포츠 정신 함양

△ 대학 태권도교육의 현장학습 축적

△ 태권도 문화의 형성이라는 대회 목적을 갖고 제1회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장기 전국남녀대회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타 대회가 개인전 토너먼트에 의한 단체전 복합방식이던 것과는 달리 학교별로팀을 구성해 통합4제급에 대한 단체대항 토너먼트 방식으로 단체전이 펼쳐졌는데 남고부 29개교, 여고부 12개교 등 총 41개교가 참가했다. 또한 개인전에는 남고부 100개교 434명, 여고부 49개교 143명 등 총 148개교에서 57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펼쳤다.

단체전 처녀우승의 영광은 남고부가 경기 송림고등학교, 여고부는 은광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남녀최우수 선수상의 영광은 안홍엽(송림고), 모선영(인덕공고)이 차지했고 지도상은 남고부에 최친(송림고 코치), 김현성(성동고 코치), 여고부에 정해주(은광여고 감독), 손지희(배성여고 코치)가 영광을 안았다. **태권**

남고부, 풍생고와 리라공고 동반 우승



▲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하는 선수들.



김부영

고려중학교 교사
중고연맹 홍보이사

유난스럽게도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속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제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광영고등학교 밴드부의 힘찬 광파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개막되었다. 많은 귀빈과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된 개막식에서 중고연맹의 이유생회장은 대회사에서 『선수들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심신단련과 기술향상에 노력하여 자기발전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세창 협회장은 『21세기 세계 태권도 무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은 중주국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가는 노력을 당부』하는 격려사를 보냈다.

이어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치사에는 『승고한 무도정신을 발휘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회에

서도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태권도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예와 도를 닦고 신체를 연마하여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만듦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동량 지재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참가선수가 말하듯 대규모 대회임은 틀림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는 대회 규모는 무척 바람직하나 선수들의 수용능력과 지방 선수들의 장기간 출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연맹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회 현황을 보면 남고부 73개교 841명, 남중부 62개교 567명, 여고부 37개교 182명, 여중부 30개교 98명 등 총 202개교에서 1,685명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나타냈다.

경기 내용을 요약하면 팀에 관계없이 기량이 평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급별 경기 내용은 남고부 편급 충북체고 박종천 선수가 논산공고 이대기 선수를 맞아 얼굴 돌려차기와 뒤차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6:1 판정승으로 1차전 통과. 또한 리라공고 양현호 선수는 천안농고 이호선 선수를 원발 몸통과 원발 뒤차기로 맹공 6:1 판정승으로 2회전 진출. 경성공고 이정희 선수는 한성고의 박기태 선수를 2회 30초만에 돌려차기로 앞면을 강타하여 K.O.승으로 3회전 진출. 남고플라이급 대전체고 윤정환 선수대 서울 삼일고 박동진 선수의 경기에서 대전체고 윤선수가 삼일고 박진수를 3회 1분10초경 오른발 앞차기로 앞면을 강타하여 K.O.승으로 4차전 진입.

여고부 편급은 봄철 연맹대회 우승자 리라공고 유수미 선수가 문성여상의 윤계순 선수를 2:1 판정승으로 제1면저 4강에 진입. 여고헤비급 은광여고 추수연 선수는 덕소고 송미영 선수를 맞아 1회30초경 오른발 앞차기로 앞면 강타와 오른발 찹기 등 연속 공격으로 K.O.승 준결전입.

남고라이프급 리라공고 송민 선수가 광영고 광동준 선수와 격돌하여 2회 1분10초에 얼굴 들어



▲ 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이 참석, 대회 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찍기와 앞면 공격으로 R.S.C.승으로 3회전 진출. 또한 한성고 박관빈 선수는 전년도 대통령배 우승자 대전체고 민경승 선수를 맞아 2회전 1:1, 3회전 종료 30초전 앞돌려차기로 1점 추가, 2:1로 승리. 남고부 편급 송곡고 유광석 선수가 부평기술고 박정호 선수를 2회 1분4초만에 들어찍기로 앞면강타 R.S.C.승으로 16강 진입.

여수중의 이석봉 선수가 인천구월중의 김봉환 선수에 원발 얼굴 돌려 차기와 원발 몸통 공격으로 제압하여 우승을 하며 선수마다 깔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입상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남고부는 풍생고와 리라공고와 동반우승을 차지했고 은광여고, 구월중, 대원여중이 또한 각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부별 최우수선수상은 장대진(풍생고) 이승민(은광여고) 김차성(구월중) 정경선(대원여중)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지도상은 이경배(풍생고) 박영수(리라공고) 한홍식(은광여고) 김규현(구월중) 손병욱(대원여중)이 받았다. **태권**

여수 진남체육관에 힘찬 빵빠레 80개 학교에서 754명 출전



▲ 우승기를 수여하는 임정태회장.



항성길

국교연맹 편집위원
고양종교 교사

이충무공의 얼이 깃든 천혜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제1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타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7월 27일과 28일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연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번 대회에는 겨루기부분 남자 380명, 여자 77명, 품새부분 297명 등 총 754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참가학교는 서울 18, 경기 22, 인천 1, 강원 5, 충북 4, 충남 4, 전북 5, 전남 13, 경남 2, 부산 1, 대구 1, 광주 1, 제주 2등 총 80개교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임을 자랑하였다.



▲ 메달을 목에 걸고 손을 높이든 입상자들의 자랑스런 모습.

각 체급별 참가선수수는 핀급 80, 플라이 64, 밴텀 59, 페더 56, 라이트 40, 라이트웰터 34, 웰터 36, 라이트미들 22, 미들 23, 라이트헤비 18, 헤비 25명으로 가장 치열한 체급인 핀급은 6승을 해야 입상권에 들 수 있었다.

개회식에서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임정태회장은 『국기태권도의 뿌리이며 터전인 국민학교 태권도를 가일층 저변확대로 활성화시키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회장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단순한 대회보다 값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여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하라』고 격려했다. 개회식 행사를 가장 빛낸 서울미동국민학교 시범단의 절묘한 시범은 많은 관중의 우렁찬 박수와 탄성을 받았다.

명랑하고 보람찬 대회로 기록되기 위하여 연맹 위원, 심판, 경기요원, 대회추진회가 혼연일치, 선수법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다른 대회에서 보기 힘든 정확한 계체, 공정한 심판, 유수같은 경기운영으로 한건의 소청이나 불패함 없는 모범적인 대회운영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상용 대회장의 물심양면의 배려와 김원호 준비위원장의 치밀한 지원으로 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경기용인국교가 영광의 우승을, 여자부는 태권왕기 우승팀인 서울강덕국교가 또다시 우승을 차지하여 금년도 2관왕이 되었다. 그리고 최우수선수상은 정영철(용인) 최유리(강덕)가, 인기상은 신준식(단대) 정미나(영풍), 미기상은 안병규(동명) 김윤희(토평)가 받았다. **태권**

격파발표회 실시, 행운권 추첨 등으로 관중유치



▲ 개회식에서 대표선서를 받고 있는 이정길 대학연맹회장.

한국대학태권도 연맹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본 연맹의 이정길 회장의 개회사와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최용수회장의 환영사,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 회장의 격려사와 본 연맹

의 고문인 조동환님의 축사가 있었다.

금번 대회에서는 제1회 격파발표회를 실시함에 따라 경기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격파기술의 발전에 커다란 기대를 모은 대회였다.

본 연맹의 이정길 회장은 차기 대회부터는 품새경연대회도 실시하여 대학인들의 연맹체다운 면



▲ 남녀체급별 우승자와 대회 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모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금번 대회는 이정길 회장의 배려로 전광판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행운권을 추첨하여 많은 관중유치에도 힘썼으며, TV 실황중계를 하여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뭔가(?) 보여준 대회라고 생각 된다.

남자부 경기는 A·B조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A조는 각 체급당 1명으로 제한하여 두팀까지 출전할 수 있었다. 여자부와 전국규모의 입상경력이 없는 신인들이 참가하는 B조의 경기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않았다.

첫날 경기는 동아대, 경희대, 체육과학대, 한국체대의 우승을 위한 분투노력이 눈에 띄는 날이었으며, 여대부는 성신여대, 상명여대와 체육과학대의 삼파전이었다. 남자부 B조의 경기에서는 인천전문대학과 체육과학대학이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경기내용을 보면, 편급에서 밴텀급까지 체급을 올린 서성교(한국체대)선수가 최종필(청주대)선수와 박경화(인천전문대)선수를 누르고 4강에 올라섰다. 페더급의 강창모(동아대)선수는 김현철(한국체대)선수에게 공중두발 연속차기와 내려찍기 기술로 얼굴을 강타하며 전국가대표다운 경기운영으로 관중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영호(경희대)와 김광수(한국체대)의 경기에서는 1회전에 임선수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가 2회전에서는 1:1의 득점상황을 나타내었으며, 3회전에

서는 김선수가 오른발 돌려차기로 2득점을 추가하여 3:1로 임선수를 물리치고 8강에 합류하였다. 헤비급 경기에서는 성필용(동의대)선수가 조채춘(인천전대)선수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하여 8강에 합류하였다. 2회전까지는 2:2로 서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으나 3회전에서 조선수가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3회전 종료시간이 가까워지자 모든 관중은 조선수의 승리인줄로 알았으나 경기종료 바로 전에 성선수가 1득점을 추가하여 성선수가 우세승을 차지했다.

여대부 경기에서는 페더급의 김경숙(체과대)선수가 김성숙(성신여대)선수에게 승리하여 4강에 합류하였다.

라이트급에서는 박정희(한국체대)선수가 박선미(상명여대)선수에게 이기고 올라온 김경애(체과대)선수를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랐다. 웰터급의 이성미(상명여대)선수는 이미라(성신여대)선수를 누르고 전국가대표다운 기량으로 결승전에 합류하였다. 미들급에서 이선희(체과대)선수는 신영미(체과대)와 박혜영(경희대)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이틀째 경기에서 동아대학교는 6체급이 준결승에 올랐고, 그뒤를 경희대(4체급)와 체과대(3체급)가 뒤를 쫓고 있었다. 모든 관계자들은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동아대가 종합우승을 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다. 그러나 미들급



▲ 어느 대회보다 높은 기량을 선보여준 선수들.

의 이현석(동아대)선수가 최정복(경희대)선수에게 패배함으로써 우승의 방향을 점칠 수 없었다. 결국 헤비급 경기에서 김재경(동아대)선수와 박형래(체과대)선수의 결과에 따라 1,2,3위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즉, 미들급까지는 경희대가 금3, 동1 이고 동아대가 금2, 은3 이었고 체과대가 금2이었다. 그래서 박선수가 우승을 하면 경희대가 종합우승이고 체과대가 2위, 동아대가 3위였고, 반대로 김선수가 승리하면 동아대가 종합우승, 2위는 경희대, 3위는 체과대가 되는 빅 게임이었다. 그러나 두 선수의 결과는 김선수의 승리로 돌아가 종합우승은 동아대가 차지하게 되었다.

여대부경기에서는 상명여대가 선수구조상으로 절대 우세하였으나 체과대의 화이팅에 밀려 준우승을 하였다. 결국 여대부의 경기도 마지막 경기인 체과대의 김민정선수와 상명여대의 박영신선수의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메달 수에서 체과대가 금3, 동2 이었고, 상명여대가 금2, 은2, 동1 이었다. 즉, 박선수가 승리할 경우에는 금3, 은2, 동1로 상명여대가 종합우승을 할 경우였다. 그러나 득점상황이 4:1로 김민정선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자 체육과학대학은 팀 역사상 처음

으로 여대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남대부 B조에서는 3연패를 했던 체과대를 물리치고 인천전문대학이 금4, 은1, 동2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격파 발표회는 손기술과 발기술로 구분하여 기술격파와 위력격파로 채점기준을 책정하였다. 사실상 격파시범에 대한 채점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채점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설사 품새경연대회가 실시되더라도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기준치 설정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하겠다.

격파발표회의 손기술 대상에는 문영봉(체과대)선수로 300점중 212점을 획득하였고, 기술은 붉은 벽돌 2장과 대리석 2장 격파였다. 우수상은 신근언(체과대)선수로 총 207점을 얻었고 붉은벽돌 2장을 격파하였다.

발기술 대상에는 오영환(체과대)선수로서 총득점 277점을 얻었고, 기술은 540도 회전 돌려차기였다. 우수상은 고만희(체과대)선수로 273점을 얻었고 제자리 공중 몸돌아 차기 기술로서 칼에다 사과를 쏘아 격파하는 묘기였다. **태권**

“중화대북은 태권도를 정책종목으로 채택해 집중적인 투자”



이미 세계 정상을 자리잡고 있는 중화대북은 여자 태권도 대표팀의 뒤를 이어 남자 대표팀도 정상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코치 3명, 남자 선수13명 등

총 16명의 중화대북 태권도 대표팀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서 울체고, 동성고, 한채대에서 전지훈련을 한뒤 8월 24일 귀국했다.

중화대북 대표팀을 이끌고 한

국에서 전지훈련을 가진 하용성 코치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하여 경기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고 한다.

82년도에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라이트헤비급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하용성코치는 작년 3월에 중화대북 대표팀 코치로 건너가 대표팀을 지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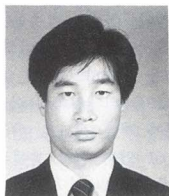
『중화대북 정부는 태권도를 정책종목으로 채택,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보내 기술향상을 꾀하고 있는데 여자 태권도 대표팀의 경우 올해엔 경기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터어키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아직 경기력에서 한국에 처지는 남자 대표팀은 우리보다 우수한 체력조건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전지훈련 등을 통한 기술축적으로 한국을 추월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월 그리스에서 개최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는 하용성코치는 『여자부는 월드컵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한 반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화대북을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나라가 빠른 속도로 한국을 쫓아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중주국으로서 보다 차원 높은 기술발전으로 이들을 이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맹렬
여성스포츠인들은
많은 국제대회에서 남자들을
능가하는 두드러진 성적을
올리며 국가체면을
살려준 예가
종종 있다.

한국여성스포츠와 태권도



박선양

일간스포츠기자

여성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남성보다 훨씬뒤로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스포츠세계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무시할 수 없을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근대올림픽 초기에는 성차별의 오랜 관습으로 인해 여성의 출전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관습이 지배해온 한국땅에서 여성의 스포츠참여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어지고 남녀평등이 강조됨에 따라 스포츠에서도 여성에 대한 문호가 넓어지기 시작, 지금은 남성 못지않은 세를 과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여성스포츠의 발전은 더욱 눈부셔 오히려 남성을 압도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물론 아직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행정직과 지도자직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는 있지만 선수생활 그 자체로만 놓고 볼때 남자들이 배워야할 부분도 많다.

한국의 맹렬 여성스포츠인들은 많은 국제대회에서 남자들을 능가하는 두드러진 성적을 올리며 국가체면을 살려준 예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남녀가 같이하는 운동으로 소위 인기종목인 농구, 배구를 비롯해 핸드볼, 하키, 탁구, 양궁, 유도 등 비인기종목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자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이들 종목서 태극낭자군은 남자쪽보다 국제무대서 한수위의 평가를 얻어내며 국위를 선양하는데 앞장섰다.

느린 거북이처럼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범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짧은 기간에

눈부신 기량향상을 보인 대만에 추월을 허용

세계 정상적 자리를 내놓고

2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한국은 '80년 LA올림픽서 여자농구가 은메달, '76년 몬트리올올림픽서 여자배구가 동메달을 획득한데 반해 남자는 아직 입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 탁구, 핸드볼 등에서도 여자쪽이 먼저 세계정상에까지 도달하는 등 남자를 압도해왔다.

그러나 많은 경기종목서 한국여성스포츠가 이토록 성공적인 발자취를 남기며 발전해 오는 동안 우리 여자태권도는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태권도종주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창기에는 선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안고 독주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느린 거북이처럼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범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짧은 기간에 눈부신 기량향상을 보인 대만에 추월을 허용 세계정상의 자리를 내놓고 2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대만은 자신들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는 운동으로 여자태권도와 리틀야구 등 몇가지 종목을 선정, 집중적인 육성책을 써 왔다고 한다.

여자태권도의 경우 먼저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체조건이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한뒤 종주국 한국의 1급지도자들을 초빙해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맡겼다. 그결과 불과 수년만에 한국을 제치고 월드컵대회 2연패 등 확실한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종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시못할 저력을 지녔던 한국 여자태권도가 종주국의 체면까지 손상당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태권도인들의 대답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즉, 종주국이라는 이유 하나로 언제까지나 1등을 할 수 있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자라나는 새싹 대만, 터키 등 후발국가에 대비를 소홀히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서의 발전방안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는 것.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지적이다.

이제 한국 여자태권도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자태권도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도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역시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종목인 태권도가 세계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상을 고수하기 위해선 국가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선 태권도인들과 행정책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비단 이 방안은 여자태권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놓인 여자쪽에 더 시급한 처방이다.

이와 같이 사고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실천에 옮겨질때 우리의 태권도가 올림픽정식종목에 채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여자태권도라는
나무에 자양분을 줄때 여자
유도가 얼마전 세계선수권서 남자의
그들에서 벗어나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줬듯이 우리 여자태권도도
다시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과 동시에 일본의 유도처럼 간판종목으로 자리를 굳히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또다른 실질적인 방안의 하나는 여자태권도팀을 늘려야 한다. 현재 중·고교팀의 수도 줄어드는 형편이고, 실업팀은 단 1개팀도 없는 것이 한국여자태권도의 현실이다. 때문에 중·고교 때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하던 선수들도 한창 기량이 무르익을 무렵인 대학 때부터는 운동을 등한시하게돼 퇴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그나마 몇 안되는 대학팀에 진학한 선수들도 운동을 계속할 만한 실업팀이 없어 선수생활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조로해 버린다. 더욱이 지도자로나설 수 있는 길을 남자들은 어려운 현실에선 그

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결국 선수생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선 일반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태권도를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보급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태권도장은 이제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일 순 없다. 엄마, 아빠, 누나 등 온가족이 정신수양을 쌓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마당이어야한다. 특히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현시점서 여성의 호신술로 태권도가 필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내고 알려야한다.

여성들을 도장으로 끌어들이기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점은 기존의 시설들을 보완 개선해야만 한다. 샤워시설 및 안전매트의 설치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하겠지만 궁극적인 여자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선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지... 실제로 서울의 몇몇 유도도장은 샤워 및 헬스시설도 함께 구비, 여성인구들을 늘려가고 있다.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여자태권도라는 나무에 자양분을 줄때 여자유도가 얼마전 세계선수권서 남자의 그들에서 벗어나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줬듯이 우리 여자태권도도 다시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새풀같이 끈기와 싸움닭같은 투지가 넘치는 단군의 딸들을 믿는다. **태권**

마카오 경찰청 초청 태권도 시범

신도림국교 어린이 시범단

서울시 협회는 지난 8월16일부터 22일까지 마카오 경찰청장과 경찰청 태권도 총 교관 이동섭 사범의 초청으로 어린이 시범단원 21명, 임원 10명 등 31명이 마카오 및 홍콩에서 시범을 실시하였다.

마카오는 서울시와 자매 결연을 한지 10년이 되었고, 지난 10년전 마카오로 파견된 이동섭 사범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경찰청 정식 직원인 무도 총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마카오 태권도협회, 경찰청 태권도회를 조직하여 태권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 사범은 태권도를 마카오에서 5대 인기 스포츠로 발전시켜 태권도 우표까지 발행한 바 있으며, 경찰청 정식 수업 및 특경부대 기동부 대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우리 시범단은 8월 16일 TG 629편으로 홍콩에 도착, 마중나온 이동섭 사범의 안내로 곧바로 마카오행 선편을 이용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경찰청장과 간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곧바로 대단히 크고 고급스런 중국식당(리스본 호텔내)에 안내되어 마카오 태권도 협회장과 간부들 그리고 마카오 TV 카메



라랜과 각 신문사 기자들의 후레쉬 세례를 받아 첫인상부터 태권도의 인기가 대단함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자 인터뷰에서 이동섭 사범의 통역으로 우리 시범단 임원과 선수들을 소개하였더니 다음날 신문에 대서 특필로 보도되어 무척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가 외국에서 이토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에 남다른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크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일행은 18일 오후 6시에 바스코 체육관에서 안토니오 디

아스 경찰청장과 마카오 태권도 협회장, 경찰관제자 및 각계 인사들과 3,000여명의 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시범행사를 절찬리에 연출되었다. 어린이 시범단의 일사 분란한 묘기와 절도있는 순간 동작, 신체예술의 무한함 등을 펼칠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다음날 각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었다.

태권도를 통하여 세계의 곳곳을 달리면서 민간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어린이 시범단을 위해 협회는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태권**

<이공신 서울시협회 이사>

체육관 벽마다 각종 대회 상장으로 가득한 우수선수 배출의 산실

전라남도 충원체육관(관장 김제남)

전남 보성군 별교읍 회정리에 자리잡은 태권도 충원체육관은 1960년 3월 1일 개관 이래 30여년간 이지방 태권도 보급 발전의 산실이었다.

체육관에 들어서면 깨끗하게 정돈된 40여평의 체육관에 주위 환경도 짙거나 정겨운 느낌이 든다.

체육관 내부 사방벽엔 그동안 체육관에서 수련한 관원들이 각종 대회에서 획득한 상장들로 가득차 있다.

그 많은 상장을 보고 있으면 별교에서 성장한 김제남 관장이 후배 양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3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상장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김관장은 수련생의 지도에 있어 기술면은 물론 정신수양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신수련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있다. 외적인 충실보다는 차라리 내적인 충실이 더 값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김관장

의 지론이다. 즉 예의가 없는 무도나 스포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의와 신의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밝고 평화스러울 것인가 하고 강조한다. 그런 탓인지 관원들 모두가 밝은 얼굴에 인사도 잘하며 예의바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김관장은 현재 별교상업고등학교 서무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퇴근 후에 곧바로 체육관으로 와서 관원들을 지도하고 저녁늦게 집으로 돌아 가곤 한다.

이제 많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가하면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김관장은 『충원체육관에서 수련한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이라도 마련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김제남 관장

부산의 중학교 중에서 “최고 강팀” 전국 무대에서도 돌풍예고

부산직할시 영남중학교



손종식 교장

부산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장립·신평벌의 맥박이 숨쉬고 굽이굽이 7백리 낙동강의 종착역, 철새들의 낙원인 을숙도를 굽어 금빛 낙조가 형언할 수 없을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봉화기슭에 영남중학교 태권도부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친다.

1952년 개교 이래 1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남중학교

는 “충·효·예의 전통적 민족열을 신장하고 강건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길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하는 선진 조국의 슬기로운 역군을 기른다”라는 이유론 이사장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씩씩하고 참된 가운데 서로 사랑하자”는 교훈 아래 근면 성실한 자주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생각과 끈기있는 노력으로 자기 발전을 이룩

하고 나라와 겨레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86년에 부임한 손종식 교장은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제1목표라 밝히면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사회적 도덕성과 개인적 도덕성의 조화를 위해 도덕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손교장의 교육 목표 아래 54명의 교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인간교육과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태권도부는 1972년 3월 31일 차동철 교사(현재 부산체고 교사)와 신동점 코치(현재 시부체육관 관장)가 이중균(현재 대웅체육관 관장), 정대록 선생수를 주축으로 팀을 창단하여 수많은 우수 선수들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로 이종열(울산학생중 교사), 김민한(사립), 임석섭(체육과학대 4) 등을 꼽을 수 있다.

그후 1984년 3월 1일 부임한 심원정교사가 학창시절에 태권도를 한 선수 출신으로서 예절 교육, 정신교육을 바탕으로 선수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량급 출신으로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김재호 코치를 영입한 90년도 부터는 더욱



심원정 체육교사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90년 부산소년체전에서는 금6, 은5, 동2의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91년 부산소년체전에서는 금5, 은3, 동5으로 역시 종합 우승하여 서부교육청이 3연패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올해의 유능한 선수로는 3학년 전유근, 김정옥, 김인연, 홍경수, 2학년 박기호, 정철근, 최윤섭, 김동준, 최성준, 1학년 황치우, 김석, 이은신 등은 각종 전국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91년 중·고 연맹전에서는 은2, 동2을 획득했고, 지난 8월 24일 끝난 체육청소년부장관기 태권도 대회에서는 금1, 동1개를 획득하였다.

그동안 영남중학교는 부산시 장기대회 3연패, 부산협회장기 6연패, 부산교육감기 4연패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면서 부산의 중학교 중에서 선봉적 역

할을 해왔다.

한편, 태권도 선수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에 따라 개인별 평가기록표를 비치하여 시험때 출전할 때는 매일 아침 자율학습을 통하여 학습부진 선수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등 학력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남중 출신을 보면 오는 10월 그리이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해비급의 김봉근(경희대 3) 선수는 지금 태능 선수촌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고, 동아대 최신재, 이명철선수, 경상대 구동신, 한갑석, 한국체대 박재성, 동의대 차용석, 한길찬, 김송남, 관동대 김천일, 청주대 장주동 선수가 있고 부산체고 이상훈, 김민우, 동천고의 김대훈 등도 장래가 촉망되는 영남중학교의 동문들이다.

이런 훌륭한 선배들의 후광을 업고 전국 정상을 매년 노크하고 있는 영남 건아들은 심원정 지도교사, 김재호코치의 열의있는 지도아래 머지 않아 태권도에서 영남중학교의 선풍을 예고하면서 의욕적인 땀방울을 쏟고 있다. **태권**

김태운, 김태진씨 수연회(壽宴會)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성대히 개최

경상남도 태권도 고단자회



91년 6월 8일 토요일

이날은 산수가 수려한 합천 해인사에서 합천군 태권도 협회장을 비롯 많은 태권도인들의 축하 속에 경남 태권도 고단자회의 원로 회원이신 김태운(63세), 김태진(62세)씨 회갑(진갑)수연회를 개최한 뜻깊은 날이다.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두사람은 평생을 태권도와 함께 해온 분으로써 경남협회 창립 당시부터 경기, 심판 이사를 거쳐 전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해오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다.

1부에서는 두분의 약력이 소개되었고 고단자회의 이병길회장(8단)께서 대표로 두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기념패와 기념선물을 증정했으며 부인들에게도 금반지를 끼워 드렸다. 또한 경남협회의 이순달회장은 축하 화환을 보내왔고 경남협회 복지위원회 권영춘 사무국장도 복지규정에 따라 금반지를 선물했다. 협회의 이도재 고문께서도 금일봉을 내려 이들을 축하해 주었다.

두분께서는 답사를 통해 후배들이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주어 무어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어 참석하신 사람들에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두분께서는 오늘도 고마움을 죽을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남은 여생도 태권도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보였



다.

태권도와 함께 해온 두분의 발자취

현재 경남협회 고문이며 고단자회 원로회원, 국기원 고단자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운님은 태권도를 배운 이래 태권도와 함께 살아온 경남 태권도계의 산 증인 이시다.

해군사관학교 태권도 교관시사관생도들과 교관단을 이끌고 매년 동남아 각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그 나라 사관생도들과 교민간의 친선체육대회 및 태권도 시범으로 태권도 보급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33년간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몸담아 오는 동안 각국으로 부터 훈장 및 포장을 받았으며 6.25때 전공으로 미국 은성 무공훈장 등을 받기도 했다. 교관직을 떠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상남도 체육회 이사 및 경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역임해 왔다.

김태진님 역시 경상남도 태권도협회 창립 때부터 감사, 이사, 부회장직을 역임해왔다. 그는 장승포시에서 운영해온 태

권도장을 아들(김덕용)에게 물려주고 현재 지역경제에 참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시며 고단자회 회원으로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의 뒤를 이어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덕용사범은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무도인의 사랑과 존경이 어우러진 한마당

밴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생일 축하 노래와 샴페인을 터트리는 소리속에 수연회는 흥겹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합천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이근상관장이 경제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장에서 나온 도자기를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무도인의 사랑과 존경이 어우러진 가운데 펼쳐진 이번 행사를 통해 선배나 후배 모두에게 뜻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본다. **태진**

〈고단자회 조희삼 관장〉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튼튼한 나무로 자라거라” 교직에 몸담은지 30년

이우모(서울 신관중학교 교장)

이우모

1933년생(59세), 7단
중동중,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성동공고, 경기고, 용산고 교
사를 지냈고 교육위원회 장학
사, 장학관을 거쳐 1984년도에
신관포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했고 1989년도에 현재 재직하
고 있는 신관중학교로 옮겨왔
다.



교 직에 몸담은지 30년
신림동에 위치한 신관
중학교의 이우모교장은 현재 개
교한지 10년도 채안되는 이 학
교에 2년전에 부임해 왔다. 『무
엇보다도 도덕적인 가치관이 정
립되어 학교의 전통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우모 교장의 교육관은 민주
시민 함양, 올바른 가치관 정립,
학력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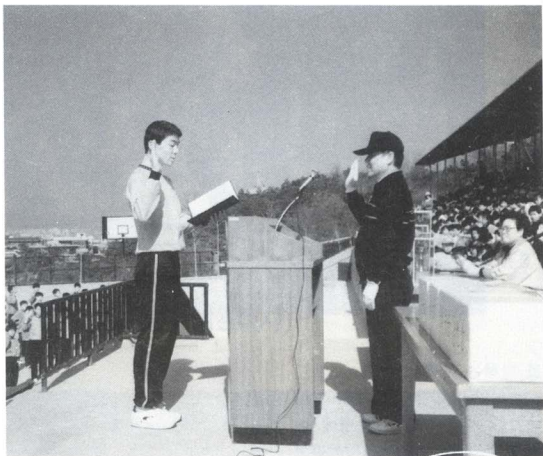
남들이 그를 가르쳐 ‘원리 원
칙대로 살고 고지식하다.’고 하
는데 그야말로 30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사람답게 훈장냄새가
난다. 그의 인생철학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평범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들려준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공부한자
더 배우는 것 보다는 물과 공기
와 빛이 골고루 들어 튼튼한 나
무로 자라듯 장차 훌륭한 사람
이 되도록 거름을 주는 마음으
로 교단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우모교장이 태권도와 인연
을 맺은것도 30년이 넘는다.

해방이후인 40년대말 중동
중학교 1학년때인 1947년도에
YMCA에서 고 윤병인관장에게
서 처음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
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50년에 6.25사변이 발발하면
서 중단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53년도에 서울대 사범대에 입
학한 후 창무관이 개관하면서
다시 태권도장에 나가기 시작해
이남석 관장에게 태권도를 배웠
다.

이후 1957년도에 군에 입대하
였는데 태권도를 한 인연으로



육군본부 의장대에서 태권도 지
도를 맡기도 했다.

그가 군에 있을 때가 현재
ITF(국제태권도연맹)총재인 최
홍희씨가 육군 소장으로서 육군
의 전 사병에게 태권도를 지도
하던 때라고 한다.

『당시 최홍희장군은 군대 내
에서 태권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
맹과 국제태권도연맹으로 나뉘
어져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최홍희씨가 군대에 있을
때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교장의 의견이
다.

군복무중에 태권도 지도를 담
당했던 이교장은 제대후 60년도
부터 성동공고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서 태권도부를 만

들어 제자를 지도하기 시작했
다. 태권도부에 약200여명의 학
생이 참가해 태권도를 수련했는
데 이 학교에서 6년을 재직하는
동안 꾸준히 태권도를 배웠던
학생들 중에 31명이 성공창우회
를 만들어 오늘날 까지도 그 모
임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이 운동을 통해 맺어졌기
때문에 선후배간의 예의범절이
분명한 만큼 두터운 정을 주고
받아 가족과 같이 고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성공창우회 회원들
의 오랜 숙원이었던 태권도장을
성내동에 마련, 창우체육관 문
을 열기도 했다.

『체육관 문을 열게 된 것은
회원들이 언제든지 도장에 나와
태권도를 하면서 건강을 다지면
서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장문을 열게된 동기



▲ 운동회 때 학생들과 달리기도 함께 하며

를 말하는 이교장.

그러나 도장을 전적으로 맡아 관리할 사람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회원들 모두 각자 자기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범을 뽑아 도장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사범이 지도는 잘 하지만 도장 경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40,50대이상의 태권도 인들은 경기보다는 무도정신 위주로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요즘의 태권도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태권도가 세계속의 스포츠로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태권도의 스포츠화는 자연적으로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다보니 선수가 우선되게끔 될 수밖에 없고 우승한 선수들은 자연히 자만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떠받드는 풍토가 20여년간 이어오는 가운데 무도정신이 희박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태권도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는 그는 태권

“태권도가 세계속의 스포츠로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태권도의 스포츠화는 자연적으로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다보니 선수가 우선되게끔 될 수밖에 없고 우승한 선수들은 자연히 자만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떠받드는 풍토가 20여년간 이어오는 가운데 무도정신이 희박해졌다고 봅니다.”

도가 특정의 운동선수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저변이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우수한 기량을 가진 수련생들 중에 경기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반면 교육계만이 가장 낙후되어 있어 학교에 체육관시설하나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는 형편이라는 이 교장.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육계에도 시설투자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학교에 체육관과 수영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체육관 등이 설치된다면 학생들이 건전한 운동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할 수 있을 뿐더러 휴일이나 방학 때에 친구들이 모여 함께 뛰어 놀게 되고 학생들이 학교로 모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권**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대학에 입학후 태권도 수련하며 무도의 의미 체험

“분별력이 있을 청년기나 성인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 더 좋을 것……”

박용덕(아주 프라스틱 대표이사)



박용덕

1945년생(47세) · 2탄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졸업

현재 주식회사 아주 프라스틱

대표이사

요즘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공부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부하는 대열에서의 이탈은 이미 인생의 낙오자인양 취급받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학창시절에 남달리 운동에 심취하였던 박용덕씨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각자 취미생활에 열중하였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학생들은 문학이나 철학, 운동 등에 심취하면서 나름대로 낭만을 즐기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오늘날의 교육제도를 아쉬워한다.

“우린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라는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테니스선수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스포츠인이었다.

그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진학 후의 일이다.

『고등학교 동창중에 친하던 친구들이 모두 태권도장엘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도장을 찾아가는데 흰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친구들의 모습속에서 저도 태권도를 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대학을 다닐 때인 60년대만 해도 각 대학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유행병처럼 번져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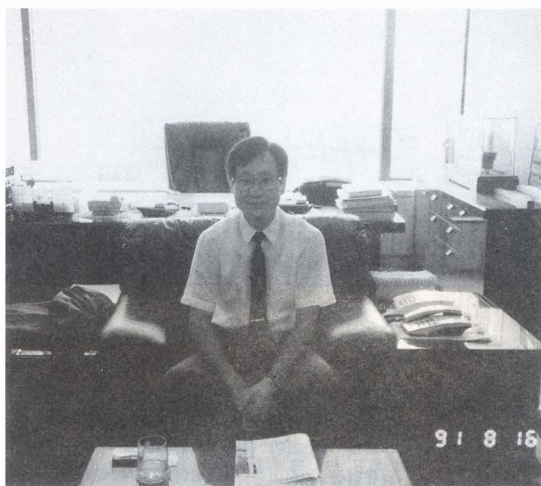
『대학진학후 공부하겠다고 운



“
학창시절에
남달리 운동에
심취하였던 박용덕씨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나 뿐만
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각자
취미생활에
열중하였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어렵던 시절이
었지만 학생들은 문학이나
철학, 운동 등에
심취하면서 나름대로
낭만을 즐기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고 말하
면서 오늘날의 교육
제도를 아쉬워
한다.”

동선수 생활을 그만두었던 제가 느닷없이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자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였 습니다. 당시 저는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태권도 유단자가 되면 유학가서 아르바이트하기에 가장 좋다”며 모모 대학선배를 팔아 설득하고 태권도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태권도장에 나가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던 무도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시대적인 혼란기와 맞물려 당시 당수라 불리던 태권도를 배운 사람은 싸움패(그는 지금의 폭력배와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덧붙인다) 인양 바라보던 것을 직접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참된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스포츠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룰(rule)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권도가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태권도가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수련을 하게된다면 그들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인생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그가 느낀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학시절에 2단의 유단자가 된 박용덕씨는 태권도 덕분에 군복무 때 무지무지 고생을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화려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고 있다.

ROTC장교로 임관한 그는 최전방 포병대대에 배치되었다. 그가 복무중이던 시절에 1968년도 김신조 간첩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장공비들이 많이 남파되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때라

대간첩작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대간첩작전 수색분대가 최전방 1개대대에서 태권도 유단자로 구성 되었는데 여기에 그도 당당히 선발(?)되어 최전방을 살살이 뒤지며 무장공비를 소탕하였다. 당시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었고 어디서 간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동기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위험상황에서도 태권도 유단자로서 담력을 과시하면서 수색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 태권도 유단자가 아니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할 그때의 그경험은 이후 인생의 어떠한 어려운 고비도 넘길 수 있는 저력이 되게 했다.

1남1녀를 두고 있는 박용덕씨는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최근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아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겸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 “시간은 쪼개서 쓸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며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는 것이다.

요즘은 태권도가 발전하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감회를 갖게한다는 그는 『저는 스포츠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룰(rule)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무도태권도의 길을 접해보길 권하며 말을 맺었다. **태권**



도장에서의 컴퓨터 활용



신성환(청호 태권도장 관장)

'58년 서울에서 출생해 영동고를 졸업했다.

'82년 10월부터 도장을 운영해왔는데 3년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도장운영에 이를 활용해왔다. 76호('91. 봄호)에 시리즈를 시작, 이번이 세번째 글이다.

지난 겨울호 부터 컴퓨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컴퓨터의 개괄적인 설명 및 컴퓨터의 구입, 실제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명령어(DO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다. 이번호 부터는 실제로 컴퓨터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실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먼저 도장에서의 컴퓨터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 본인의 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해 보겠다.

아침에 도장에 나오면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넣고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그런다음 제일 먼저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가정통신문을 선택하여 수련비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

방법은 오늘의 날짜와 납부될 수련비의 금액을 입력하고 KEY를 두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 결과는 오늘의 날짜로 입관된 모든 수련생의 수련비 납부 통지서가 각 개인의 그 달에 해당되는 각종 측정수치 및 자료(예를 들자면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넓이뛰기, 팔굽혀펴기, 신장, 체중, 약력, 앞으로 굽히기 등)을 최최와 최중으로 구분하여 찍고 그 밑에는 수련중 관찰 기록한 새로운 기록 내용, 납부통지서, 영수증이 자동으로 인쇄되어 발부된다. 이것으로서 수련비 납부 통지서 발부는 끝나는 셈이다. 예전에 수작업으로 이 통지서를 발부 할 때에는 책상위에 각종 자료를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자료라해도 찾아 쓰기가
쉬워야만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전 또는 1년전자료가
박스로 하나씩 쌓여 있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찾아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컴퓨터로 자료를
보관할 경우 그러한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나씩 찾아서 기입한후 발부를 했던 것에 비하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편하고 빠르다.

그 다음으로 수련비 납부통지가 끝나면 프로그램 중에서 종합관리 항목으로 이동하여 종합적인 검색 작업을 실시 한다. 항상 실시 하는 검색 작업으로 생일자 확인을 들 수 있다. 확인 결과 생일자가 있으면 간단한 생일 축하카드와 선물을 준비한다. 이 생일자 확인도 지난날에는 달 별로 노트에 기록을 해놓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으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 할 수가 있다.

생일자 확인이 끝나면 개인관리 항목으로 이동하여 각 개인의 관찰 기록한 내용을 개인별로 입력하고 동시에 부모님으로 부터의 건의 사항을 점검 한다. 그런 과정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면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한다.

각 개인에 대한 검색 작업이 끝나면 인원현황으로 이동을 하여 현재인원 구성 현황 및 입퇴관 관계를 점검하고 새로 입관된 인원 중에서 3개월차 과정에 있는 수련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출력시킨 다음 검토하여 우편으로 집으로 보낸다. 이과정 중에서 우체국에 가는것만 직접할뿐 주소를 쓰거나 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은 총 45가지의 항목을 위와 같이 처리하는데 나열된 것은 그 중의 일부이다.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력

부 정리라든가 심사채점표 작성 등 분류작업을 요하는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KEY를 두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른 예를 한가지 더 든다면 인원현황에서 증감현황을 예로 들어 보겠다. 통상적으로 그 달에 몇명이 입, 퇴관을 하고 총원은 몇명이며 전년도와 비교 현황은 어떤가를 알아 보기위해서는 다른 곳에 기록해 놓은 자료를 찾아서 대조를 해야 되겠지만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원현황 중에서 당해년도와 연간대비 현황을 선택하고 KEY를 두드리는 것으로 증감수치까지 계산이 되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령 88년도부터 90년까지 3년간 총 입퇴관의 월별통계라든지 퇴관자의 인적 사항 확인, 아니면 년도별, 월별로, 일별로 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왜 컴퓨터에 대해서 남달리 매달리느냐 하며는 지난날 수 작업으로 현재와 같이 도장의 업무를 처리할 당시에는 분류보관 처리하는 자료가 자그마치 라면 박스로 하나씩 1년에 쌓여 갔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해도 찾아 쓰기가 쉬워야만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전 또는 1년전자료가 박스로 하나씩 쌓여 있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찾아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컴퓨터로 자료를 보관할 경우 그러한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출석부 정리라든가
심사채점표 작성 등 분류
작업을 요하는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컴퓨터 KEY를
두드리는 것으로 대실할
수 있다.

수 있다.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 했을때 설명 했듯이 컴퓨터의 고속처리능력과 대량의 자료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 설명한 내용은 일상적으로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장에서 컴퓨터의 활용의 일 예이다.

다음으로 도장에서의 컴퓨터의 빼어 놓을 수 없는 활용 분야는 가정 통신문 작성에 있다고 보겠다.

본인 뿐만 아니라 모든 관장님들이 몇년전 까지만 해도 통신문 작성은 철핀으로 파라핀 종이를 꿰어서 등사기로 등사를 해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보편화 되면서 예쁜글씨로 도안까지 곁들여 통신문을 만들었고 타자기를 이용한 통신문 작성등이 그래도 활자화 되어 신뢰감을 주었지만 글씨를 쓰는 것과 타자를 치는것은 문자의 경직성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통신문 작성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문의 작성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다양하게 통신문을 작성 할 수 있으며 활자화된 통신문은 부모님들의 신뢰감을 얻기에 더욱 더 충분하리라고 본다. 일 예로서 한글이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본 도장의 통신문을 소개해 왔다.

통 신 문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명일 오후에 제 37회 합숙훈련을 (통합)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아 래

1. 훈련일시 : 1991년 3월 16일 토요일 20:00 - 익일 08:00
2. 훈련장소 : 본 태권도장
3. 준 비 물 : 1. 개인 침구류
2. 간 식
3. 세 면 도 구
4. 목 장 : 슈리닝 및 도복
5. 시간표제 계획
 - *. 20:00 - 핵목권 도착
 - *. 20:00 - 21:05 인원점검및 집정리
 - *. 22:00 - 자유시간
 - *. 22:05 - 22:35 청신교육
(예의관 !)
 - *. 22:40 - 취침준비
 - *. 23:00 - 취침
 - *. 02:00 - 02:30 - 단체체육력훈련
 - *. 02:30 - 취침
 - *. 07:00 - 기상
 - *. 07:05 - 08:00 아침운동
 - *. 08:05 - 귀가

서울시 태권도 협회

청 호 태 권 도 장

번뇌를 씻고 사악한 것을 씻어낸다



우봉 조재호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하얀 도복을 입은 태권도인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번뇌를 씻고 사악한 마음을 씻어내야만 한다. 행서체로 써본 洗煩蕩邪를 풀이하면 번뇌를 씻고 사악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이다.

고향 음성에서 이우형님을 따라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한 것이 30여년 전의 일이다. 당시 심리나 떨어진 읍내 경찰서 연무관에서 밤마다 태권도를 수련했던 것이다. 당시 2단까지 승단한 후 서울에 올라와 절에서 생활하면서 태권도와 함께 서예를 시작했던 것이다. 불광동의 김민체육관에서 계속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면서 참으로 엄격하고 선후배가 철저하며 어른 모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 운동을 열심히 한 덕으로 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을 경험하고 군에가게 되었는데 공인4단

을 따가니 사단 전체에서 최고 고단자라고 우우가 좋았다. 제대후 태권도 사범과 서예를 계속하면서 국전에 여러 차례 도전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태권도의 무도정신과 수련연마한 체력을 바탕으로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서예가의 끝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태권도를 배운 덕분에 체력은 튼튼하고 마음은 건강하다. 그러나 태권도와 서예는 근 30년이 되어가는데 갈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내 탓이요」라는 용어가 참으로 절실히 가슴에 닿는다.

接人春風 臨己秋箱 - 단을 대함에 봄바람과 같이 따스하게 하고 자기를 다스림에는 秋箱과 같이 하라는 말과 같이 늘 (白彊不息) 스스로 강해서 쉬지 말아야겠다. 그리하여 모든 번뇌를 씻고 또한 사릿일을 뿌리치고 정통과 정의로 태권도 무도정신을 심어 사나이 기백을 살리고 성으로 맺어진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하여(心花發明) 마음의 꽃을 활짝 열어 온 세상을 밝히자

끝으로 애송하는 西山大師의 詩를 태권도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기로 하겠다.

踏雪野中去 不須胡難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통일촌 군내국민학교

태권도의 강인한 명맥은 이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 가을 운동회 때 시범을 보이고 있는 군내국민학교 학생들.



한가위를 이틀 앞둔 9월의 전원은 풍만했다.

가랑비가 적시는 강변의 쾌적한 드라이브에 모처럼 사무실의 답답한 명에를 벗어본다.

한강 건너 행주산성의 탑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청명한 비취색으로 하늘이 열렸다.

도심에서는 결코 말아보지 못했던, 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 사이를 부는 풍요의 훈향, 갯섬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연한 파스텔조의 색채에서 자연(自然)을 숨낸다.

통일로(統一路)!

반도를 두동강이로 나누어 온 갖 피폐와 질곡을 민초에게 강요했던 강대국의 횡포와 어리석게도 그들에 빌붙어 이데올로기의 허망한 명령에 혼을 잊겨 추어온 반세기의 쓰라림으로 포장된 차도 위를 잘도 달려갔다.

통일로 가는길!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길은 온 겨레가 뜻을 모아 닦아야 한다. 임진각, 임진강변에 떠도는 망향의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다.

임진강을 가로질러 판문점으로, 개성으로 뚫린 길로 이어진 외다리인 자유의 다리를 건넌다.

이 다리의 상판(上板)은 쪽널로 이었다. 자동차 바퀴 밑으로 임진강은 흐르는 듯 멈춘듯 말이 없다.

백로 한마리가 우아한 날개짓을 뒤로하고 북으로 향한다.

허허로움을 나눌 실향민의 향수를 저 백로 날개짓에 실어 날려본다.



▲ (중간) 조영준 교장이 한규인사범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분단후 단절된 남북의 교량 임진강 철교의 잔재



▼ 태권도 시범



통일촌,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 백련리의 마을 이름이다.

분단 46년간 민통선지대의 비옥한 임진강변에서 버려진 땅을 갈아온 곳이다.

태권도의 강인한 명맥은 이곳 통일촌의 군내국민학교(교장 조영준)에서도 이어지게 되었다.

전교생 42명, 아홉분의 선생님이 학교의 전부이다.

그러나 마흔 두명 전교생이 모두 도복을 입은 태권도가족이다.

지난 9월 20일은 이곳 통일마을의 동네 잔치날이었다.

군내국민학교의 가을 운동회에는 모든 주민이 모였다. 불과 두달 보름 남짓한 태권도 수련에서, 막 걸음마를 배운 돌배기 아기의 그것을 연상케 하지만 당당히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아이들은 1학년 조희선, 민충근 부터 6학년 최은주, 서윤석에 이르기까지 마흔 두명 모두 노랑띠와 하얀띠를 매고 있다.

7월 1일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장에서, 특활 교실에서 고사리 주먹을 불끈 쥐고 겨레의 몸사위가 녹아 이어진 태권도의 발놀림, 손 놀림을 흥내껏 했다.

정년을 한 해 앞둔 예순 넷의 백두(白頭), 심영택교감선생님께 한마디 여쭙었다. "선생님 한 분이 불과 7명씩 맡아 가르치니 어린이들은 모두 가정교사를 둔 것과 같습니다. 학습효과는 매우 높지만 아이들은 의지력이나 절제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규인사범께서 도복을

회사하시고 아침마다 한시간씩 봉사하셔서, 이제 어린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단단해지고 예절도 바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태권도는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이렇게 국내에도 우리의 숨결이 다달오지 않은 곳도 있었다.

협회는 북녘의 태권도인들과도 교류를 하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촌, 대성리 자유의 마을 등지의 우리의 자녀들이 도복 입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고사리 손, 발들이 제법 당차게 얹은 송판을 지르고 차부순다.

저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남·북이 한 소리에 한 몸짓으로 흰 도복을 따으로 버무려 어우러짐에 한발 가까워진 듯하다. 속이 후련하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이곳 통일촌 태권도가족의 환영과 환송 속에서 북녘의 태권도인들과 오가며 막힌 속을 뚫게 되리라! 북에는 약 7만명의 검은띠, 그리고 20여만의 수련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의 님이 밀바탕된 태권도의 어우러짐을 통해 통일의 길이 더욱 가까워진다면 이 얼마나 좋은가?

어린이 농악대로 변신한 42명의 통일촌 자녀들이 미쁘다. 돌아오는 길썰, 장끼 한마리가 사리원까지 이어진 차도에서 노닐고 있었다.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 대표팀 단장에 이근수 전북협회회장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3일 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에 이근수 전북협회회장을 선임 하는 등 임원을 선출했다.

한편 제10차 세계태권도연맹 정기총회 회의 대표로는 최세창 회장, 합동기술위원회 기술대표로는 강원식 전무이사가 파견된다.

▲임원명단

단장 : 이근수(전북태권도협회회장)

남자부감독 : 김대연(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위원장)

코치 : 윤창옥(한성고등학교 교사)

트레이너 : 김영국(경남체고 코치)

여자부감독 : 이근우(부산협회 전무이사)

코치 : 이홍규(부산 남여자상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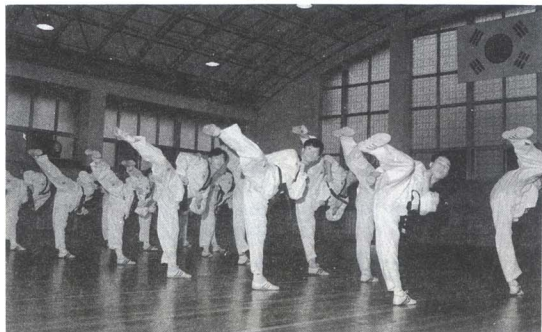
트레이너 : 양기모(인천체고 교사)

체코에 시범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한국과 체코의 체육협정 및 KOTRA 체코지사의 요청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체코의 프라하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키로 했다.

체코내 시범에는 임원 7명과 선수 16명 등 총 23명이 파견될 예정인데 동구권내 태권도 보급의 촉진과 한국문화 소개로 국위를 선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중인 대표 선수들.



올해 선수등록 총4,144명

1991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을 보면 선수가 4144명, 팀이 68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선수가 5%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팀은 2.5% 증가한 것이다.

남녀선수별로는 남자가 4% 감소한 반면 여자가 10%증가현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팀등록에서는 남자가 0.9%, 여자가 18% 증가한 것이다.

	선수 및 팀 등록 현황	
부 별	선 수	팀
국민학교	301	69
중 학 교	1088	191
고등학교	2073	290
대 학 교	403	38
일 반 부	278	93
합 계	4144	681

서울특별시 협회

관악구 은천체육관팀 우승 제12회 협회장기 어린이 겨루기 대회

올해 들어 12번째 맞이한 서울시 협회장기 어린이 겨루기 대회가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국민원에서 국민학교 23개팀 3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벌였다.



▲ 우승기를 수여하는 엄윤규 서울시협회장.

금년대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내 각 체육관들의 선수부육성을 기하고 입상전적이 없는 순수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체육관별로 단체팀을 구성하여 참가케 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선수부 육성을 활성화시켰다.

이번 대회 우승은 관악구 은천체육관팀, 준우승은 구로구 청용체육관팀, 3위는 강동구 광동체육관팀이 차지하였고,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오형근(유경체) 최성호(은천체) 박성진(마천체) 우인석(화랑체) 주봉구(봉화체) 이종원(청용체) 황성훈(지성체) 최홍석(청용체) 이동훈(유경체) 유엄식(광동체) 이재욱(장충체)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 6월과 8월 사이에 8차례의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승품단 심사대회에는 총9,672명이 응심하여 2중 9,105명이 합격하여 품단증을 수여받았다.

응심자는 예년과 비교해 볼 때 금년에는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상조회 경조금 610만원 지급

서울시내 일선 체육관 사범들의 경조사에 항상 일조하고 있는 상조회 사업이 날이 갈수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태권도인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아울러 상부상조와 협화의 기본정신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1일에는 구로구 독산동 소재 구로 중앙체육관 김기용 사범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해 주위의 태권도 가족들을 슬프게 했다.

본 회에서는 부인과 그 자녀를 위해 상조회 규정에 의거 200만원의 유족 부조금을 지급하였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급된 경조금은 14건에 총 610만원이 지급되었다. **태권**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부산직할시협회

제72회 전국체전대표 선발대회 겸 제7회 협회장기대회 개최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7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제72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대회 겸 제7회 협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는 남·여 8체급으로 일반부 대학부 국·중·고등부·여자부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학교의 명예와 부산대표로서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그 어느 대회보다 진지하였으며 태권도관계자와 많은 관중들의 관심을 모든 대회이기도 하였다.

이틀째인 11일 핀급 준결승전에서 석 운용(개금고)은 전광석화와 같은 연결동작과 빼어난 순발력으로 착실히 득점, 최태림(풍천고)을 4:2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석 운용은 같은 체급 이성근(동의공고)에게 우세승을 거두고 올라온 맛수인 김성열(가야고)과 정상을 놓고 한 판 기량을 겨루게 되었고 미들급에서는 우승후보인 박지승(동천고)은 1회전을 T.K.O승으로 장식한뒤 준결승전에서 신원조(부산체고)와 양보없는 앞차기를 주고 받은 끝에 8:7로 힘겹

게 따돌리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김정일(영남상고)을 맞아 매회 착실한 득점을 하여 4:1로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일반부

1위:남구 2위:동 대구 3위:해운대구

▲대학부

1위:동아대학교

▲일반부

이해진(남구) 이영진(부산진구) 배종임(북구) 정경구(해운대구) 김공배(영도구) 이호범(영도구) 이정기(남구) 부정원(동대구)

▲대학부

조영국(동아대) 지재기(동아대) 정기정(동명전문대) 강창모(동아대) 최종국(동아대) 김송남(동의대) 이현석(동아대) 김재경(동아대)

▲고등부

석운용(개금고) 강병선() 김민우(부산체고) 여성협(동천고) 장용국(개금고) 유창수(동천고) 박지성() 강태호()

〈부산 윤성호 편집위원〉

대구직할시 협회

신임 이선우 회장 취임식거행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에서는 전임 임성재 회장 후임으로 이선우회장(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취임식과 태권도인의 밤을 9월 13일 오후 7시부터 영

남호텔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협회장기단체대항 및 국교부 여자 개인선수권 대회

제7회 대구직할시협회장기 대회가 올해부터 여자부태권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국교부 여자 개인선수권대회를 겸해 지난 7월23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국교부 136명, 중학교부 62명, 고등부 37명, 일반부 37명, 여자부 24명, 국교여자부 21명 등 총 317명이 참가했다.

부별 우승은 고산국민학교, 경일중학교, 경성공업고등학교, 금복주가 각각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서는 영남여상이 영광을 안았다.

각지부별 친선대회 개최

대구직할시협회는 각 지역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태권도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회 각지부별단체대항 친선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구청별 단체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서대구지부가 차지했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제4차 승품단심사대회 개최

인천시태권도협회는 지난 8월



▲ 모범어린이에게 표창하는 한재수 인천협회장.

18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한재수인천시협회장을 비롯 관계인원과 응시생 및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1년도 제4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단심사에 앞서 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태권도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는 태권도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3품심사에 응시한 김수진양(12. 회망체육관)은 「한때는 친구들(특히 남자)이 놀려대기도 했지만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성격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김양은 이번에 태권도 3품심사에서는 꼭 합격을 해야된다며 동생 재원이라도 1품이라도 자랑.

한편 이날 심사에는 8백 41명이 합격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황명송위원(인천시협회 부

회장)은 예년과는 달리 응시생들의 동작이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기본동작도 잘 모르는 응시생들이 있다며 일선지도사범들이 더더욱 성의를 다해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4차 승품·단심사 합격자 현황을 품단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품-4백56명 2품-1백52명 3품-45명.
- 1단-1백9명 2단-34명 3단-21명 4단-21명 5단-3명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광주직할시협회

제5회 회장기대회 개최

제5회 회장기타기 초, 중, 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7월 13일과 14일 2일간 염주동 종합체육

태권도 소식

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초등부 14개팀 중등부 6개팀
고등부 6개팀에서 선수 40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은 초등부가 양
동국민학교, 중등부가 광주체육
중학교, 고등부가 고려고등학교
가 각각 차지하였다.

각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
과 같다.

▲초등부

김승훈(양동국교), 최홍식(월산
국교), 김재훈(백운국교), 문동
주(서산국교), 이주한(양동국
교), 윤석현(상무국교), 김현식
(서산국교), 서광호(사래지오국
교), 황성재(두암국교), 홍광석
(양동국교), 주상일(광천국교)

▲중등부

이진혁(용봉중), 김수연(체육
중), 김부권(체육중), 김철민
(체육중), 유권(북성중), 김래
현(북성중), 김선길(북성중),
신진구(체육중), 이상학(상무
중), 김태욱(북성중), 이원표
(체육중)

▲고등부

양용현(고려고), 김현철(고려
고), 박창덕(고려고), 박민섭
(체육고), 최병익(고려고), 박
남수(고려고), 마성진(체육고),
하종선(국제고)

양동국교 금년도 전대회석 권, 북성중 3연패 위업달성 제4회 시장기대회 개최

제4회 광주직할시장기 타기
초, 중, 고등학교대항 태권도 대

회 겸 제2회 추계여자개인 선수
권 대회가 선수 450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8월 31일부터 9월 1
일까지 2일간 염주동 종합 체육
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초등부 우승팀인
양동국민학교는 금년 전 대회
(교육감기, 태권왕기, 회장기,
소년체전)를 석권하며 태권도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
고, 중등부 우승팀인 북성중학
교는 2회, 3회, 4회를 우승하여
연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고등부 우승팀은 광주체육고
등학교가 차지했다.

각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
과 같다.

▲초등부

김성식(중앙국교), 김의철(양동
국교), 김재훈(백운국교), 최진
성(중앙국교), 김기홍(백운국
교), 이주한(양동국교), 김현식
(서산국교), 정석영(염주국교),
송재복(태봉국교), 강창민(농성
국교), 홍광석(양동국교)

▲중등부

이진혁(용봉중), 김수연(체육
중), 임대호(북성중), 임언우
(북성중), 김현수(상무중), 김
홍진(북성중), 염균(용봉중),
김선길(북성중), 신진구(체육
중), 이상학(상무중), 이원표
(체육중)

▲고등부

박수중(고려고), 김용욱(체육
고), 송윤기(고려고), 문기훈
(전남공고), 김명진(체육고),
김원식(체육고), 마성진(체육
고), 하종선(국제고).

▲여자부

박지연(우산여중), 이은미(국제고), 박광순(국제고), 박재은(경신여고), 정문자(전남체육관), 최우형(국제고), 이정임(학운여중), 박소정(서광여중)

신임 임원 선임

본 협회에서는 류호평 부회장, 장인환이사, 김영관이사의 사료를 수리하고 신임 임원으로 김상천 부회장(광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윤승기이사(한국유통대표), 김선홍이사(금광건설이사)를 선임하였다.

〈광주 윤웅석 편집위원〉

대전직할시 협회

충남대 체육대학 신설 태권도 선수단 사기 충전

내년에 충남대에 체육대학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직할시 당국에 따르면 '88서울올림픽 이후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로 체육지도자 양성 등 체육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부권에 체육대학이 없는점을 들어 지난 8월 1일 체육 청소년부와 교육부에 충남대에 체육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대전직할시는 최근 체육부 및 교육부로 부터 충남대에 체육대

학 신설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대측은 체육대학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어서 교육부로 부터 인가만 나면 내년도 부터 체육대학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대에는 태권도 선수단(감독 김동건 교수)이 88년 창설되어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당국의 결정으로 체육대학 신설이 확실시 되자 민춘기 교수(사회체육학과장)은 “이지역 체육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주위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회체육과 2년인 황일선군은 “우리 태권도선수단이 다른 팀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충청인으로서 자긍심이 앞선다고 어깨를 으쓱했다.

제3회 회장기대회 대전실업 전문대 대학부 정상

대전직할시 태권도 협회(회장 한용석)에서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시내 초·중·고·대·일반 선수 4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회장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장인 한회장은 “제3회 회장기타기 태권도 대회를 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호국 무술로써 태권도

가 대전체육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이 대회에는 그간 태권도 발전에 공이큰 김용희(오정중학교)교장 선생님과 대전체육고등학교 태권부 지도교사인 이계승 감독에게 감사 및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최우수 선수상은 정우대(플라이급)에게 돌아갔다.

한편 부별단체입상학교는 다음과 같다.

▲국교부

우승: 목동국민학교

준우승: 홍릉국민학교

▲중등부

우승: 대신중학교

준우승: 오정중학교

▲고등부

우승: 대전체육고등학교

준우승: 유성농업고등학교

▲대학부

우승: 대전실업전문대학

준우승: 충남대학교

제3차 승품단 심사 대회 개최

9월 1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응시생 588명이 참가하여 그간에 각 도장에서 수련한 결과에 대한 각 품단별로 자격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집행관인 이진수(시 태권도 협회 전무이사)씨는 인사말을 통해 “국기 태권도의 량과 질의 발전을 위하여 일선지도자의 희생적 지도와 수련생 여러분의 강한 의지력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같고 닮은 기술을 유감없이

태권도 소식

발휘하여 달라"고 말했다. 심사관인 장석봉(시협회 경기이사) 씨와 박선용(시협회 심판이사) 씨는 금번 응심생의 실력은 평년 수준의 느낌이었으나 2단이상 유단자의 실력이 저하된 느낌이이라며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국가 대표 선수단 전지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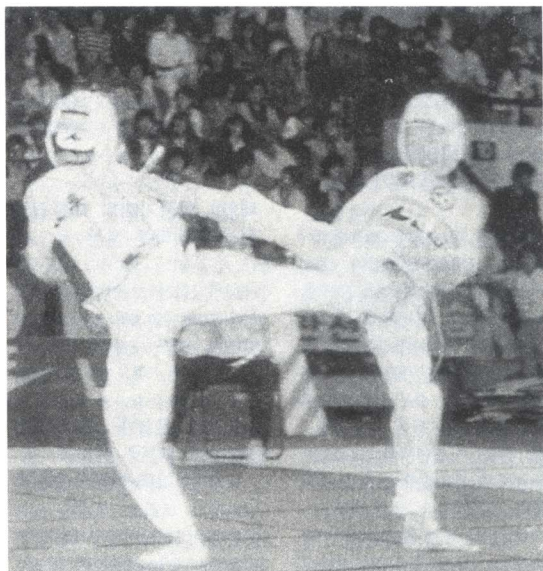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국가 대표 태권도 선수단이 9월 11일 대전을 방문, 대전시 협회 선수들과 태권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오일남 사범(인도네

시아팀 코치)이 이끄는 남·여 선수 18명은 대전 대림관광호텔에 본부를 설치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강훈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대전방문은 대전직할시 한용석 회장의 전액 경비 부담으로 추진 되었는데 오는 10월 10일까지 대전에서 머물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제10회 세계선수권 대회에 대비한 최종 마무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협회에서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회 한인친선태권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경기도협회

제13회 경기도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수원에서 도내 시, 군에 산재되어 있는 초, 중, 고, 일반 선수 9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경기도협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선수들은 그간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연마해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91년 사업계획중 일반, 대학, 고등부 우수선수들에게 1월중에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나, 중등부 11명은(체급별) 회장기 대회시에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총회결의에 따라 이번엔 지급 실시되었기에 중등부 경기는 정말 불을 뿜는 멋진경기가 펼쳐졌다.

(단체우승)

▲남자부

초등부:우승(용인국민학교)

준우승(단대국민학교)

3위(태평국민학교)

중등부:우승(부천동중학교)

준우승(성남서중학교)

3위(성남동중학교)

고등부:우승(송림고등학교)

준우승(정원고등학교)

3위:(덕소고등학교)

일반부:우승(덕소OB팀)

준우승(여주군 태권도협회)

3위(대호문 제3체육관)

▲여자부

중등부:우승(대원여자중학교)

준우승(군자중학교)

3위(고양여자중학교)

고등부:우승(덕소고등학교)

준우승(광명상업고등학교)

▲최우수선수상

남자부:초등부 박용구(용인국민학교), 중등부 정정렬(부천동중학교), 고등부 김경희(송림고등학교), 일반부 김종길(덕소 OB)

여자부:중등부 임병은(대원여자중학교), 고등부: 김영희(덕소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자 명단

핀급:이완기(태성중학교)

플라이급:김덕훈(성남서중학교)

밴텀급:김성진(부천동중학교)

페더급:김선웅(태성중학교)

라이트급:정정렬(부천동중학교)

L-웰터급:이준희(태성중학교)

웰터급:조화연(성남서중학교)

L-미들급:김정환(강화중학교)

미들급:백희진(성남동중학교)

L-헤비급:정재광(부천동중학교)

헤비급:심운섭(부천동중학교)

이상 11명에게는 장학증서 및 장학금(각10만원씩)이 수여되었다.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충청북도 협회

중·고 연맹 태권도 대회 개최

지난 6월 15일 청주 한별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제16회 충청북도 중·고연맹 태권도 대회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해가 거듭할 수록 참가선수가 늘어나 이번 대회에는 300여명이 넘게 출전하였다.

개회식에서는 한국 BBS의 구천서 총재가 본 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 대회의 단체 입상학교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위:청주중

2위:청주남중

3위:보은보덕중

▲고등학교 1위:청주기공

2위:충북체고

3위:신홍고

제2차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6월 23일(일) 충북 태권도협회 청도체육관에서 91년도 제2차 승품단심사대회가 많은 수련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고정갑순회장 추모대회 및 전국체전 예선대회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청주 한별국민학교체육관에서 정갑순회장 제13주기 추모대회 및 제72회 전국체전에 선대회가 개최되었다.

부별,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소식

▲고등부

정진백(충북체고) 성태경(청주 기공) 김인환(청주기공) 신보현(청주기공) 이재길(청주기공) 임종일(충북체고) 김한기(청주 기공) 홍중수(충북체고)

▲대학부

임재경(청주대) 박석근(청주대) 권오철(청주대) 조희진(청주대) 신경수(청주대) 양원철(청주대) 이광섭(청주대) 임영희(청주대)

▲일반부

임명규(제천체육관) 서상원(공군사관학교) 이상현(제천체육관) 김동수(제천체육관) 김현주(제천체육관) 연재석(증평체육관) 진용민(옥천체육관) 김석환(제천상무체육관)

충북 선수단 전지훈련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에서는 충북도내 각급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과 선수 및 임원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 방학중 3박4일간 전지훈련차 수련회를 갖는데 금년에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단양군 구인사에서 있었다.

협회의 전종운 회장은 수련회에 참여한 전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기를 진작하기도 했다.

산수가 아름답고 빼어난 자연 속에서 산정을 정복하는 극기훈련, 즐겁고 흥겨운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마지막날 모닥불 놀이 등은 젊은 청소년 선수들에

게는 호연지기 기상과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경험과 보람을 가져다 준 매우 뜻있는 수련회였다고 본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충청남도 협회

제14회 회장기 태권도 대회

여자부 처녀출전한 천안여상 우승의 영광
금남국교·태안중·중앙고·부별 우승차지

제14회 회장기 태권도대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서산농림고교 학생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여자부로 나뉘어 소속학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였는데 제72회 전국체전 2차 선발전을 겸한 경이였기에 더욱 태권도인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종승 충남태권도협회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충남태권도 선수의 저변확대와 지난 71회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이란 불명예를 제72회 전국체전에서 기필코 중위권에 진입하여 충남체육중흥의 일익을 담당하자고 출전선수단에게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대회에 처녀출전하여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천안여상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짧은 기간동안 충남체육관 한상배 관



▲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태안중학교팀.

장과 정영훈 지도사범 그리고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맹훈련 끝에 이룩한 금자탑이기에 더욱 빛이 났다. 한상배 관장은 천안 여상에 정식팀이 창단되면 전국 규모대회에서의 우승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가 컸다.

중등부는 대명중·백제중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태안중이 4체급을 석권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태안중은 코스모스 체육관장이며 국제심판인 김상호 사범이 맡아 지도하고 있다. 지난 대회에 이어 고등부는 중앙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중앙고는 제72회 전국체전 충남대표 최종선발전에서도 5체급을 석권하였으며 이번 대회부터 중앙고의 김낙중 지도교사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힘찬 출발을 하였다.

국교부도 지난대회에 이어 금남국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국교부

박순근(대동국교) 박홍규(산양국교) 강대희(금남국교) 박태근(금남국교) 서창운(세도국교) 김봉상(세도국교) 윤정훈(연봉국교) 강인석(연봉국교) 구범모(금남국교) 이재영(대창국교) 이수욱(대남국교)

▲중등부

장광재(태안중) 강주희(태안중) 박상수(태안중) 권오현(예산중) 조태희(대명중) 김민환(광흥중) 광영진(천안북중) 이기학(태안중) 고성석(예산중) 김 준(서산중) 서용태(장항중)

▲고등부

김만중(천안중앙고) 이상복(논산고) 송영식(천안중앙고) 최성진(천안중앙고) 김광호(천안중앙고) 류명원(논산고) 조한호(천안중앙고) 이정선(천안중앙고)

▲여자부

황창훈(웅비체) 김동관(논산체)

안광용(광진체) 홍순찬(웅비체)
윤주경(논산체) 고민규(경희체)
서훈성(웅비체)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전라북도 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전북태권도협회는 91년도 제4차 전북승품단 심사대회를 8월 25일(일) 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협회 임직원, 각 체육관장과 지도사범 및 학부모들의 대거 참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심사 상황은 1품 응심자 344명, 2품 응심자 174명, 3품 응심자 30명, 1단 응심자 177명, 2단 응심자 81명, 3단 응심자 33명 등 총 839명이 응심했다.

심사에서의 문제점은 많은 수를 한꺼번에 심사함으로써 응심자들의 실력 테스트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과 수련생들의 예의 범절 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태권도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책임있는 교육이 요망된다.

신임 편집위원에 이운영씨

전라북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발행하는 계간 태권도지의 편집위원으로 이운영씨(5단·국기체육관관장)를 선임했다.

전북협회는 앞으로 발간할 예정인 전북협회 신문(격월간)발

태권도 소식

인터뷰

신임 이건수 전북협회장(남양건설사장)



오는 10월에 그리스에서 개최될 제10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와 체코, 독일 순회시범 한국대표 선수단장으로 확정된 전북태권도협회 이건수회장(48세)

그는 『전북 태권도인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태권도 중추국의 대표 단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며 부끄럽없는 세계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포부를 밝혔다. 이건수회장은 지난 3월 16일에 전북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북 태권도의 옛영광을 되찾고 국기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전북태권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바 있다. 그동안 협회부회장으로 7년간 재직해왔으며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6개월을 보낸 이회장은 『먼저 선수 육성에 대해 전북선수의 빈곤을 실감한다』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계체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기업체로 연결되어야만 태권도 선수의 맥과 선수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각학교의 특별활동 및 선수육성 특별지도와 각학교의 선수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선수 확보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선수, 코치 등을 초빙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표로 선수 스카우트와 생활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북태권도 선수들의 훈련 장소를 전북경찰청 상무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경찰청 정식 무술사범으로 장한철 상임부회장을 선임하고 앞으로 이를 연계해 태권도 관장사범들이 범죄퇴치에 앞장서며 청소년 선도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행을 앞두고 협회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윤영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으로 이상현·정철씨가 일하게 되었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전북의 태권도인들은 과거에 태권도협회장을 관직인 시장들이 역임해 그야말로 명예회장의 임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태권도인이며 경제인인 이회장이 협회 임원진과 이사, 각 체육관장들을 어떻게 유대하며 잘 이끄러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전북태권도인의 화합과 단결에 대해서 이회장은 『각관별 파별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인정신을 갖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본인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앞으로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태권왕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는 10월에 개최될 전국체전이 전북에서 열리는데 있어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는 『전국체전이 질서문란으로 지탄받은 대회가 아닌 시도지부 태권도인이 함께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제72회 전국체전 2차 예선 및 최종선발대회 개최

제72회 전국체육대회 2차 예

선대회가 6월 15일 광주구동실 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각 부 체급별 4명씩 선발하였다.

최종선발대회는 7월 12일 본 협회 훈련장에서 각 부 체급별 8명이 경기를 하여 최종으로 제 7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확정하였다.

전남 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

정준호(광양고) 조진호(여수고) 이재석(한영고) 정충민(한영고) 양재훈(여수고) 김태우(해룡고) 고재환(여수고) 최진수(주암고)

▲대학부

이대훈(대한체대) 지환(목포대) 박형식(한체대) 김현철(한체대) 서병선(대한체대) 장종오(체과대) 박병용(목포대) 김성현(목포대)

▲일반부

한지환(전남협회) 김영주(상무) 박삼홍(임회체) 정치용(화랑체) 임채수(영광체) 차광체(상무) 박은석(전남협회) 고영철(전남협회)

제13회 교육감기 초, 중학교 및 제4회 고교대회 개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담양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초등부 6팀, 중등부 14팀, 고등부 17팀 등 총 37팀에서 25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입상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1위:여수남국민학교

2위:목포이로국민학교

3위:무안망운국민학교

감독상:나주산포국민학교

장려상:보성득량남국민학교

지도상:여수남국교(임동성교사)

▲중등부

1위:여수중 A팀

2위:여수중 B팀

3위:순천이수중학교

감독상:승주서면중학교

장려상:보성중학교·영암중학교

지도상:여수중(백현교교사)

▲고등부

1위:여수고등학교

2위:영광종합고등학교

3위:지명종합고등학교

감독상:순천공업고등학교

장려상:완도고금종합고등학교

고흥영주고등학교

지도상:여수고(김순형교사)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6월 30일 여천홍국체육관에서 전남 동부지구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전남체육회관태권도훈련장, 목포지구는 목포대학체육관에서 각각 승품 및 승단대회를 개최하였다.

합격자는 1품 306명, 2품 121명, 3품 23명, 1단 172명, 2단 80명, 3단 45명, 4단 14명, 5단 4명 등 총 765명이다. **태권도**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경상남도 협회

제1회 협회장배 중·고 대회 개최

6월 29일과 30일에 제1회 협회장배 중·고태권도 대회를 성대히 치루었다.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이순달 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는데 특히 강삼재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태권도가 우리 국민에게 미친 정신적 육체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 태권도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부별우승자 명단

▲중등부

전진성(고암중) 김현일(장안중)
안경호(삼진중) 홍판호(삼진중)
곽영민(화천중) 허길용(함양중)
강정문(창원중) 김진영(고암중)
성진식(진해동진중) 권대금(함양중)
하현주(남해중)

▲고등부

박상민(고성농고) 김해철(경남체고)
구자훈(경남체고) 정상수(경남체고)
임순택(경남실고) 정승일(경남실고)
박은줄(경남체고) 강경곤(창원고)

경남태권도협회 조직기구 개편

회장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문회의가 김태운 관장을

의장으로 하고 조희삼 관장을 간사로 한 원로태권도인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배영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억곤 전전무를 사무국장으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두어 전 태권도인의 소망인 태권도회관을 건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원활한 경기운영과 경기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질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위원회에 여성분과도 신설하여 여성 지도자의 참여와 여성 태권도인의 저변 확대를 넓혔다.

경남태권도 협회는 이제 전문위원회의 운영이 정착되어 상당한 수준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법복지회가 발족 2년째 접어드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경남 태권도인의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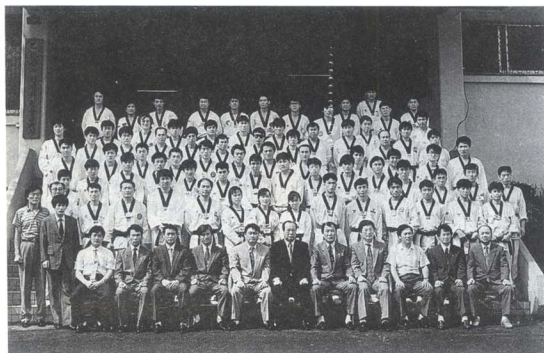
이번 조직 개편도 이순달회장의 대화합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남의 태권도인들은 한 차원 높은 앞날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심판강습회 개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마산 실내 체육관에서 전국 심판 강습회를 개최했다.

경남·부산·경북·대구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강한 이번 강습회에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홍종수 부회장, 노우종운영부장,



▲ 심판강습회 참가자들.

김대연 심판위원장과 김용길, 심명구 부위원장이 참석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2, 3급 보수교육 이수자 23명을 비롯해 10명의 2급 심판, 53명의 3급 심판이 탄생하게 되었다.

심판편집위원에 권영춘씨



경남협회에서는 전 황길성 편집위원의 후임으로 권영춘관장(마산한일체육관)을 선임했다.

권영춘관장은 현재 경남협회 심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남 권영춘 편집위원〉

제주도 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 회장 방문

최세창회장이 지난 6월28일 제주도협회를 방문하여 정이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환담을 나누고 태권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회장은 앞으로 태권도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

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각종 경기대회에서 심판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과학적인 채점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태권도는 스포츠(경기)라는 차원보다 무도라는 사실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일반인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자리에서 도협회 정회장은 지역적인 사정으로 전국대회 참여 기회가 적어 선수육성에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규모대회를 제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최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으며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인단 심사(단품)에서 도협회를 거치지 않고 단증이 서류로 심사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차후 이러한 서류심사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협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심사는 받아주지 말 것을 건의했다.



태권도 소식

끝으로 최희장은 타 체육종목에서 남북체육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지금껏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슬로건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 남북 태권도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제주도협회는 지난 8월 14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91년도 제2차 승품단 심사 대회를 개최하고 응심자 418명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품(단)별로는 1품 216명, 2품 96명, 3품 13명, 1단 38명, 2단 28명, 3단 15명, 4단 9명, 5단 3명이다.

〈제주 정한수 편집위원〉

국기원

제68기 사범교육 실시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지난 9월2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제68기 사범교육을 실시했다. 4단 이상을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는 사범교육에는 총150명의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212명이 수강을 신청하는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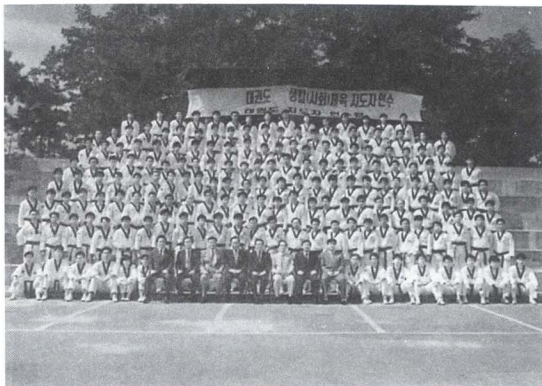
국기원에서는 이러한 초과 신청자에 대해서 지역 안배차원에서 고단자부터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교육수강자를 조절했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교육 실시

국기원지도자연수원에서는 4단이상 사범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의한 국가 생활체육지도자양성을 위한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이번교육에는 177명의 사범자격소지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총 50시간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이금홍씨, 사무차장에 이경명씨 임명

세계태권도연맹은 8월 2일자로 사임한 이종우 사무총장 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인 이금홍씨를 임명했다. 또한 퇴직한 박재욱 사무차장의 후임으로는 전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임원을 역임한바 있는 이경명씨를 임명했다.

이금홍 사무총장 약력



- 1936년생
- 연세대경제과, 고려대대학원 경제과 졸업
- 연세대학교 총학생 위원장 (1958~1959)
- 전국택시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1977~1979)
-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980~1981)
-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1989~현재)
- 주식회사 경인미술관 대표이사

이경명 사무차장 약력



- 1939년생
- 연세대 철학과 졸업 (1961)
-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초청 파견 (1970)
- 유럽태권도연맹 초대기술위원장 (1976)
-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부회장 (1977)
- 1988 서울올림픽대회 국가대표팀 코치 (1988)
- 1989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폴란드 국가대표팀 감독 (1989)
- 현재 도서출판비전 대표

제5회 올아프리카게임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태권도가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제5회 올아프리카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올아프리카 게임에서 태권도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기를 치르었는데 아프리카주 12개국에서 선수 1백 2명이 출전하였다고 밝혔다.

소련 레닌그라드 체육대학 동양무도학부에 태권도 강좌 개설

대한체육과대학(학장 고광득)은 7월 27일 유리 베즈베르코프 소련 레닌그라드 스포츠위원장(태권도협회회장 겸임)의 초청으로 태권도학과 진중의 교수 등 5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한편 김찬구(27세·5단·체육과학대

졸)씨는 현지 상주 지도사범으로 1년간 체류시키기로 했다.

김찬구씨는 레즈카프트 체육대학(일명 레닌그라드체육대학)으로부터 숙식과 도장을 제공받는 것 외에 현재 고려인협회(在蘇한인회)의 슬라바崔회장의 도움으로 소련인 수련생들을 모집,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전수하게 된다.

레즈카프트체육대학은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서깊은 대학으로 재학생은 4,000여 명이 있다.

이대학출신들은 지난 88서울 올림픽에서 소련이 획득한 전체 메달의 5/1을 획득한 바 있다.

'91. 10~12. 행사안내

- 10. 4~6: 제15회 연세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 태권도대회(연세대체육관)
- 10. 8~13: 제7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 10. 22~11. 9: 2급 경기 지도자교육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 10. 25~26: 제17회 국교연맹회장기 전국국교대회(국기원)
- 10. 28~11. 3: 제10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3회 세계 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그리스 아테네)
- 11. 6~8: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국기원)
- 11. 19~28: 3급 생활체육지도자교육
(국기원 연수원)
- 11. 25~28: 제27회 협회장기타기 전국남녀단체대항 대회(장소미정)
- 12. 9~12: '92년도 1차국가대표 선발대회(장소미정)
- 12. 19~21: '92년도 최종국가대표선발대회(장소미정)

태권가족



스 이 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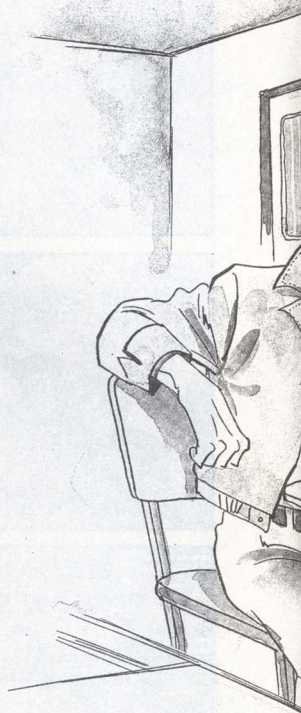
“좀 배워 둘 걸”

만준이 앉은 교실 뒷쪽 창 옆은 늘 소란했다. 수학 담당인 스물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여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시켜도 그 때뿐이었다. 멕시코 태생의 시커먼 애드리안과 플로리다에서 왔다는 노랑머리 조가 만준의 뒤에서 머리를 맞대고 수근댔다. 만준은 수학교과서에 나온 문제를 푸느라 한 눈 팔지 않았지만 영어로 된 수학용어는 자꾸 혼동되어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한국에서도 ‘방정식’이니 ‘이항’, ‘상수항’, ‘변수’ 등 말귀를 알아들어도 수학문제는 어려웠었다. 스물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민 온 지 두달이 안 된 만준에게는 영어 설명이 염불소리 같고 자장이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꾸벅조는 만준의 검은 머리카락을 누가 뒤에서 아프게 잡아당겼다.

“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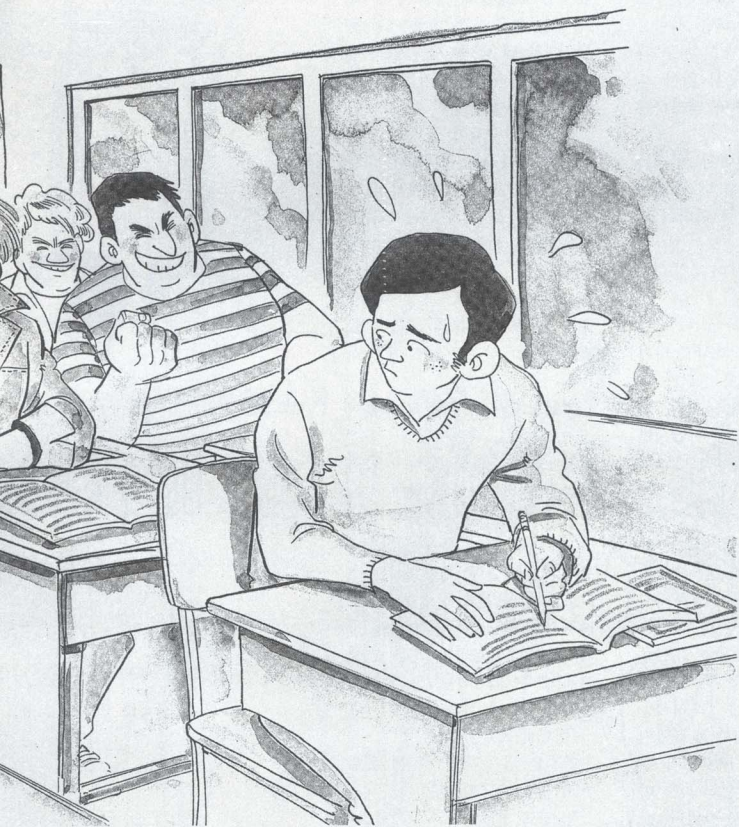
불쑥 튀어나온 한국말에 만준 곁에 앉은 아이들이 킁킁 웃었다.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연필조차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조가 또 슬며시 만준의 볼

펜을 집어갔다. 이제 스물 선생님은 앉은 차례대로 한 사람에게 한 문제씩 푸는 방법을 설명하게 했다. 뒤에서 구두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바람에 집중이 되지 않아 만준이 살짝 찌푸린 얼굴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글·윤영희(소설가)

- 서울대 문리과대학 언어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



“꺼져”

애드리안이 한 쪽 귀에만 붙어 있는 금속 귀걸이를 달랑거리며 찼려보았다. 문제를 풀 차례가 가까워 오자 조는 무스르떡칠을 한 머리를 뺨뽀뽀하게 쳐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문쪽으로 나갔다. 몇 해나 낙제를 했

지 중학교 삼학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몸집이 우람했다. 덜렁덜렁 나가는 조를 본 스물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조는 능청스럽게 화장살 좀 갔다 오겠다며 교실을 나가 버렸다. 조가 수업이 끝날 때쯤 되어야 들어올 줄은 선생님이나

반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

만준이 가까스로 집에서 적어온대로 문제의 해답을 읽고 나자 다음 문제를 풀 차례인 애드리안이 커다랗게 하품을 했다. 반 아이들이 다 뒤돌아보았다. 집에 손님이 와서 공부를 못했다는 애드리안의 변명에 스물

선생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선생님은 자꾸 다그치면 학교도 나오지 않아 중학교 중퇴생이 될까봐 염려하는지도 몰랐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어머니가 싸 주신 햄버거를 먹고 있는 만준 옆에 앉아 그 두 녀석이 같이 물었다.

“너 가라데 할 줄 아니?”

“그게 뭔데?”

“바보같은 자식”

우유를 훌쩍훌쩍 마시고 나가며 한 녀석이 모르고 그러는 척 만준의 발등을 밟고 나갔다. 만준은 두 주먹을 볼끈 쥐었지만 그들은 이미 아이들 속으로 섞여 들어간 뒤였다.

아무리 전학 온 동양인이라 해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웠다. 내일 또 그 녀석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자 만준이 공부시킬려고 미국까지 왔다고 하시는 부모님만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스쿨 뺨스를 타고 오면서 만준은 어떻게 그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궁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아마도 보복이 심할 것 같았다. 맛있는 것도 사 주고 선물도 주면서 환심을 살까 싶다가도 미국까지 와서 그까짓 것들한테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만준은 대학교에 다니는 이웃의 사촌형을 찾아갔다.

“가라데는 일본 무도야냐? 그 녀석들이 그걸 안단 말이지... 그냥 뒹가기는 그 놈들이 칼이라도 들이대면서 마약 먹으라고

할지도 모르는데...5년 전에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별로 그런 놈이 없었는데 너 참 재수 없게 걸렸다. 어떡하지? 숨겨 놓은 카드를 써 보지 그래?”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스쿨 뺨스를 기다리는 잔디밭에 나타난 형에게 만준이 뒤에서 있는 그 두 녀석을 눈썰미했다. 그들은 껌을 짹짹 씹으며 미니스커트에 굵이 높은 구두를 신은 여학생과 떠돌고 있었다. 그 녀석들을 훑어 본 형은 일부러 그들 바로 앞에섰다.

“앗!”

기합소리와 함께 형의 주먹이 공기 속으로 튀어나왔다. 계속 해서 형은 다리를 꺾싸게 올려 허공을 찼다. 다리가 옆에 있는 만준의 얼굴 위까지 솟아 올랐다.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형을 보려고 돌아섰다. 형은 더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며 오른 발 돌려차기를 했다. 2단 옆차기를 하다 말고 씹거리며 형은 만준에게 모두 들을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만준은 입을 다문 채 씹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았어.”

“이번 토요일에 시간 좀 내서 가르쳐 줘. 열심히 할게.”

“글쎄.”

계속해서 형은 밀어차기, 앞발 들어찍기 같은 태권도 동작을 해댔고 만준은 가끔씩 손으로 형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형은 스승에게서 배우는 제자처럼 공손하게 만준의 지시에 따랐다.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



이 형의 기술에 조그맣게 감탄사를 날리기도 했다. 형이 같은 동작을 두번 반복한 뒤 꽤 지쳐 보일 무렵 만준이 형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좀 쉬어.”

만준 옆에서 멍하게 형의 몸
놀림을 보고 있던 그 두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늘어
트린 채 비슬비슬 저 쪽으로 걸
어가는 것이 보였다. 만준은 누
군가가 저보고 해 보라고 할까

봐 재빨리 형이 물고 온 차에 올
라 탔다. 속으로는 “좀 배워 둘
걸”하고 끝없이 후회를 하면서.

'91년 7~9월

행사안내

고단자 승단

2차 고단자 (6~9단) 심사대회 (6. 15, 국기원)

▲서울

6단:최충호 유세종 최성진
강준원 최영길 김양진
공영선(월단)
7단:이장원 이영곤
8단:고동준 최영렬 김경지
김정수 박규철

▲부산

7단:손동국 이영기

▲대구

6단:이민석

▲인천

6단:김경하 박삼길 이상식
김진환
8단:윤치영 김진성

▲광주

6단:이기성 김관식
7단:김종삼(월단)

▲경기

6단:한선재 정찬열 차순규
(월단)
7단:정연주 배연웅

8단:김건중 임동본

▲강원

6단:김길웅

▲경남

6단:이진우
7단:전형후
8단:김선규

▲경북

6단:김광호

▲전북

6단:양희재 정선진 윤홍기
양재실(월단) 강주현
(월단)

▲국방부

6단:김용수 김용대

김종만

최동순

조문수

윤성범

최승민

박장식

최대호

홍석중

김영진

강응규

윤근성

김성호

김형원

최한수

김정희

윤종수

지용석

이명훈

김희수

한옥미

최종철

정동영

김은수

김지현

김창모

이종주

이창주

김판수

김인하

박주환

맹혁재

장범식

신정훈

윤명국

김광신

김 곡

맹효준

강영희

최순찬

한권상

이수도

박대마

최경현

여태공

김도영

김영길

김경수

고경득

이승택

김현규

김재곤

이종을

이병용

김재봉

안효민

김호경

장주만

홍승희

김수진

김상룡

황영태

이갑영

구구희

윤정원

조현도

신진균

양재성

김경호

박재균

박창주

박세용

류창욱

정전모

엄재동

최왕구

조용신

이영주

이수용

김관령

허연무

박인준

김용효

윤민철

정진산

김원호

표숙경

안철용

사범

제67기 태권도지도자교육 (5. 22~31, 국기원 연수원)

장설환

김병목

김수정

허만옥

이민석

오대환

신명철

배현옥

이정상

고석길

김기양

김덕상

김병근

박진구

임성학

안영일

김세영

노병호

이한균	정원옥	봉길수	강부영	권영길	이충영	조성천	손제열	최종열
안정덕	김민영	정종국	이희도	최광윤	이병의	유진석	김종성	전기서
박길재	신희동	최 혁	김성일	이재영	박종명	마영석	김영일	노영석
공용식	김기섭	이승용	이태성	이인호	정 용	김한진	원두희	김효정
정재호	김동복	이승훈	이해웅	최용규	이현비	김대준	김길수	김윤석
이원중	곽중근	봉정호	김태민	이호길	김성록	석종우	최완길	정연준
김용광	장영근	구철승	김성환	박종호	김종필	권오석	김남식	이용원
김장수	김석진	이정일	이소연	이택진	이종철	김재민	조봉현	김진수
이광복	전광기	김혜영	장성구	김홍렬	김승관	김희태	조민제	박종우
문성태	이경춘	오경양	엄기대	조휘윤	최 찬	최원용	박준호	채종신
김내원	김철주	이숙원	박정호	송영기	강병두	정상기	서기열	임홍규
김한철	정용식	강문규	김천완	이희영	김혜웅	서영주	박경식	정해영
김관진	장행제	이수중	정호영	김현봉	권태홍	정남섭	김상호	조영남
최효진	최성우	김승옥	김우진	김정인	고성민	방영근	박진봉	이경규
박상봉	강동원	이상철	김경우	정공조	김화수	서정성	양우원	탁성규
황승주	정윤석	석재환	박상우	김외준	김인선	이운식	고재경	박세목
김찬명	최영환	김경민	이승환	강순세	김인선	김덕기	김봉수	김장철
김종호	김희한	최수열	정구호	이재환	안윤철	안상각	김영진	이기현
최면용	김성현	우원제	신용균	안경옥	김정관	양인식	한상엽	박개순
김진춘	최재훈	김기용	박경아	이양렬	윤상철	김정선	오영주	전재완
김영일	엄중섭	이종현	이종우	이호우	정길대			
함서주	이창수	양정용	이상범	김순택	김대석			
김만수	권영윤	고시진	장세중	정원숙	유재원			
윤승렬	함동진	강수형	한문철	공영화	박순양			
황민구	박만진	명은옥	손창수	김기만	안재연			
조정래	채명훈	고광산	김광원	이훈희	유근식			
송종진	구교영	박태영	장승훈	이준태	김동희			
석태용	이광호	김재현	김선식	박길용	오해근			
이창원	오두환	이종만	맹성호	정도연	노희준			
송기섭	류화선	조홍종	이상일	최형정	김준태			
손용원	박건옥		이복영	이진영	석진균			
			양승찬	홍순석	장철익			
			심재현	신지호	권기형			
			김남곤	김종형	김명수			
			조옥성	정현봉	김정훈			
			박세태	김하일	최용석			

제68기 태권도지도자교육 (9. 2~11, 국기원 연수원)

박두영 김진수 최희순

3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8. 12~17, 국기원 연수원)

노웅수	김상룡	임효근
박관철	이덕보	박근식
이상용	강명구	박인준
송상현	김석진	박영목
강선장	이우선	정성교
이호규	박수형	신양우
이민석	김희준	최이석
김청이	이동관	장주만

김대운 이병용 김민영
 김호경 하중근 최창원
 이종을 이상규 김형원
 이명훈 김종원 장재덕
 김기홍 박태일 백경수
 이문우 최수열 김영호
 석옥륜 설태우 김용호
 김병을 장석주 장진태
 박성수 전석주 함동천
 여태공 박경균 안학락
 정원복 김성조 고상구
 이영석 이성국 김동건
 황현섭 채홍국 이기도
 김 정 김수진 김주홍
 배기철 성동표 이동룡
 천우필 오재오 김영진
 봉길수 이수도 박태욱
 김현규 오성덕 김인규
 최홍교 장성경 이경춘
 이민석 정윤석 김경호
 이정석 이남두 강경선
 김용록 윤기섭 고석길
 강석현 이정석 박현섭
 유상운 이정상 이종만
 공용식 서성복 이재명
 최재복 조기승 박 원
 양태석 정한영 김정록
 김근엽 김지연 이정수
 염종필 신정윤 전홍수
 맹혁재 이훈동 염보선
 정원옥 고판산 조길수
 박성규 이한현 유선영
 김광배 한기현 정용갑
 김혜연 윤종수 김준식
 이봉수 윤주대 이원배
 김대규 인치건 김경남

심성훈 장광명 김세영
 윤태기 박동렬 신장호
 김무천 조인숙 엄중섭
 이재철 조호철 장길태
 김현수 김성진 문영채
 이상완 이영호 고명수
 김진춘 위호일 오성택
 이후관 장범식 양재성
 강문규 정두용 김도식
 이환명 장영호 김태영
 손정민 추양원 김형규
 이주훈 이현주 이광노
 안희옥 홍덕수 황규일
 최진영 김승진 이덕만
 김인삼 이해신 임재성
 김경하

국내대회

제3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 권도 대회 (7. 1~3, 국기원)

(남고부)

▲핀급

1위:여 원 재(동성고)
 2위:정 중 석(풍성고)
 3위:박 동 중(대전체고)
 진 승 태(경남체고)

▲플라이급

1위:조 진 호(여수고)
 2위:김 봉 찬(광주체고)

3위:최 영 석(풍생고)
 김 중 운(대전체고)

▲밴텀급

1위:최 병 수(정명고)
 2위:김 진 홍(동성고)
 3위:윤 용 식(부산체고)
 이 낙 경(부산체고)

▲페더급

1위:장 덕 진(리라공고)
 2위:임 성 수(관악고)
 3위:김 정 호(동성고)
 안 홍 섭(송림고)

▲라이트급

1위:양 재 훈(여수고)
 2위:김 용 환(동성고)
 3위:김 광 호(송곡고)
 문 성 필(경남체고)

▲웰터급

1위:박 태 수(전북체고)
 2위:임 상 도(경남체고)
 3위:최 승 길(부평기고)
 천 창 영(동성고)

▲미들급

1위:강 동 국(남해상고)
 2위:김 정 규(선인고)
 3위:김 승 재(동성고)
 이 성 우(덕신고)

▲헤비급

1위:손 용 구(대성고)
 2위:홍 중 수(충북체고)
 3위:김 영 호(서울체고)
 노 승 현(송림고)

(여고부)

▲핀급

1위:강 선 경(인천체고)

2위:이 순 영(고양종교)
3위:양 소 회(천안여고)
권 은 주(광명상고)

▲플라이급

1위:모 선 영(인덕공고)
2위:최 재 숙(송곡고)
3위:김 현 화(시온고)
진 용 순(광명상고)

▲밴텀급

1위:이 승 민(은광여고)
2위:송 선 영(배성여상)
3위:조 화 임(광명상고)
김 민 정(시온고)

▲페더급

1위:서 연 화(천안여고)
2위:김 영 하(경성여고)
3위:구 효 원(인천체고)
박 계 희(배성여상)

▲라이트급

1위:윤 명 숙(인천체고)
2위:이 은 이(고양종교)
3위:박 경 숙(은광여고)
최 동 현(은광여고)

▲웰터급

1위:박 상 회(리라공고)
2위:고 내 언(고양종교)
3위:정 미 화(김제북고)
김 지 윤(경성여고)

▲미들급

1위:김 은 주(인천체고)
2위:박 은 선(고양종교)
3위:김 지 혜(은광여고)
김 상 순(배성여상)

▲헤비급

1위:정 명 숙(혜성여고)
2위:추 수 연(은광여고)

3위:신 혜 진(인천체고)
기 희 숙(유봉여고)

제1회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장기 전국남녀고교 대회 (7. 16~19, 국기원)

(남고부)

▲핀급

1위:진 승 태(경남체고)
2위:조 재 성(서울체고)
3위:김 용 민(관악고)
강 근 배(오현고)

▲플라이급

1위:김 창 균(성동고)
2위:강 병 선(개곡고)
3위:송 은 일(대성고)
김 남 우(송곡고)

▲밴텀급

1위:김 진 홍(동성고)
2위:김 성 현(성동고)
3위:김 형 원(선인고)
장 대 진(풍생고)

▲페더급

1위:박 병 순(동성고)
2위:정 현 수(송곡고)
3위:박 범 준(한성고)
정 기 원(선인고)

▲라이트급

1위:한 주 섭(관악고)
2위:김 재 균(한성고)
3위:강 정 일(부평고)
안 홍 엽(송림고)

▲웰터급

1위:최 승 길(부평기공고)
2위:김 동 성(광영고)

3위:류 창 수(동천고)
엄 태 호(송곡고)

▲미들급

1위:김 정 규(선인고)
2위:하 태 진(풍생고)
3위:박 지 승(동천고)
이 성 우(덕신고)

▲헤비급

1위:홍 종 수(충북체고)
2위:노 승 현(송림고)
3위:안 금 호(광성고)
은 재 기(한양공고)

(여고부)

▲핀급

1위:강 선 경(인천체고)
2위:유 수 미(리라공고)
3위:권 은 주(광명상고)
양 소 회(천안여고)

▲플라이급

1위:모 선 영(인덕공고)
2위:홍 지 선(광명상고)
3위:최 미 나(배성여상)
이 선 자(리라공고)

▲밴텀급

1위:이 승 민(은광여고)
2위:원 선 진(효원고)
3위:김 희(완산여상)
이 경 민(시온고)

▲페더급

1위:김 동 회(경성여고)
2위:박 계 희(배성여상)
3위:강 미 성(은광여고)
진 용 순(광명상고)

▲라이트급

1위:최 동 현(은광여고)

2위:김 옥 남(배성여상)
3위:김 은 아(영광여교)
안 정 미(송곡여교)

▲웰터급

1위:박 상 회(리라공교)
2위:윤 소 정(문성여상)
3위:정 윤 경(송곡교)
정 연 옥(상주여교)

▲미들급

1위:김 상 순(배성여상)
2위:이 용 화(영북여상)
3위:하 영 화(문성여상)
김 은 주(인천체고)

▲헤비급

1위:윤 현 정(문성여상)
2위:추 수 연(은광여교)
3위:백 현 정(덕소교)
정 명 숙(혜성여교)

(남고부 단체전)

플라이 1위:이무현(송림교)
페더 " :김경희(")
웰터 " :안홍엽(")
헤비 " :노승현(")
플라이 2위:김종운(대전체고)
페더 " :박경식(")
웰터 " :민경승(")
헤비 " :안성주(")
플라이 3위:허수녕(인천체고)
페더 " :이상인(")
웰터 " :곽택용(")
헤비 " :김대균(")
플라이 3위:최진철(성동교)
페더 " :마상배(")
웰터 " :김인용(")
헤비 " :양성오(")

(여고부 단체전)

플라이 1위:김혜선(은광여교)
페더 " :이승민(")
웰터 " :박소라(")
헤비 " :추수연(")
플라이 2위:강선경(인천체고)
페더 " :구효원(")
웰터 " :윤명숙(")
헤비 " :김은주(")
플라이 3위:김선양(고양여중교)
페더 " :김옥선(")
웰터 " :김은이(")
헤비 " :박은선(")
플라이 3위:유수미(리라공교)
페더 " :신동선(")
웰터 " :신은정(")
헤비 " :박상희(")

**제12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전국 국교 대회
(7. 27~28, 여수
진남체육관)**

(남자부)

▲핀급

1위:최 주 원(좌천국교)
2위:박 태 철(상원국교)
3위:손 영 복(은천교)
송 재 원(강덕국)

▲플라이급

1위:김 중 성(여수남국교)
2위:박 용 구(용인국교)
3위:이 창 훈(중앙국)
장 재 성(마장국)

▲밴텀급

1위:최 진 성(중앙국교)
2위:권 오 규(우산국교)
3위:정 홍 수(단대국)
진 홍 근(용인국)

▲페더급

1위:배 기 남(광희국교)
2위:최 경 식(한별국교)
3위:남 연 식(서룡국)
전 재 현(단대국)

▲라이트급

1위:신 준 식(성남단대국)
2위:박 해 창(상원국교)
3위:고 성 만(광희국)
김 정 훈(서원국)

▲L-웰터급

1위:엄광홍(성남제2국교)
2위:황길재(성송국교)
3위:조영관(부안국)
김광호(동명국)

▲웰터급

1위:최 복 철(서원국교)
2위:배 강 수(우정국교)
3위:정 우 열(여수남국)
이 원 기(강덕국)

▲L-미들급

1위:하 명 일(용인국)
2위:김 준 환(동명국)
3위:고 민 영(양동국)
이 영(연남국)

▲미들급

1위:이 정 식(성송국)
2위:유 지 훈(단대국)
3위:구 범 모(서원국)
이 순 영(동신국)

▲L-헤비급

1위:안 병 규(동명국)

2위:이 보 현(부안국)
3위:이 충 군(진남국)
유 현 민(서룡국)

▲해비급

1위:정 영 철(용인국)
2위:윤 다 함(강덕국)
3위:홍 현 옥(미평국)
윤 영 옥(성남동중)

(여자부)

▲편급

1위:최 유 리(강덕국)
2위:정 재 은(은천국)
3위:유 영 미(부양국)
박 아 름(상원국)

▲플라이급

1위:강영미(용인국)
2위:김유미(강덕국)
3위:이미현(양동국)
서은혜(영북국)

▲밴텀급

1위:김 주 회(금촌국)
2위:이 보 영(토평국)
3위:김 지 숙(영북국)
조 윤 나(영풍국)

▲페더급

1위:전 유 미(부안국)
2위:김 지 우(강덕국)
3위:조 혜 자(토평국)
김 효 민(잠전국)

▲라이트급

1위:박 재 연(예산중앙국)
2위:박 윤 심(미금국)
3위:서 희 진(갈담국)
김 해 영(금광국)

▲L-웰터급

1위:김 유 진(강덕국)
2위:조 미 영(토평국)
3위:배 윤 회(군서국)
이 오 윤(영풍국)

▲웰터급

1위:최 윤 회(은천국)
2위:임 인 옥(강신국)

▲L-미들급

1위:정 미 나(영풍국)
2위:최 현 정(강덕국)
3위:노 경 민(성남제2국)

▲미들급

1위:곽 정 원(영풍국)
2위:은 남 희(갈담국)

▲L-해비급

1위:김 보 희(구리국)
2위:이 훈 민(토평국)

▲해비급

1위:김 윤 회(토평국)
2위:홍 선 화(영풍국)
3위:이 미 현(용인국)
신 정 선(소래국)

**제2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전국 중고 대회
(8. 18~24,
잠실학생실내체육관)**

(남고부)

▲편급

1위:조 재 성(서울체고)
2위:고 동 완(전북체고)
3위:진 승 태(경남체고)
윤 종 일(풍생고)

▲플라이급

1위:전 만 중(관악고)

2위:박 병 준(리라공고)
3위:조 진 호(여수고)
이 임 수(개금고)

▲밴텀급

1위:장 대 진(풍생고)
2위:정 재 훈(서울체고)
3위:최 창 민(인천체고)
김 성 현(성동고)

▲페더급

1위:양 재 철(단대부고)
2위:이 진(정명고)
3위:정 현 수(송곡고)
양 동 훈(경상공고)

▲라이트급

1위:양 재 훈(여수고)
2위:마 상 배(성동고)
3위:김 광 호(송곡고)
송 민(리라공고)

▲웰터급

1위:최 승 길(부평기고)
2위:황 혁 모(풍생고)
3위:김 태 수(동성고)
박 태 수(전북체고)

▲미들급

1위:김 정 규(선인고)
2위:임 석 배(대전체고)
3위:김 한 기(청주기공)
송 민 오(전북체고)

▲해비급

1위:김 길 곤(리라공고)
2위:서 정 규(송곡고)
3위:정 준 호(덕소고)
손 용 구(대성고)

(남중부)

▲편급

1위:박 회 강(풍생중)
 2위:서 상 훈(천안북중)
 3위:임 태 형(완산중)
 지 석 환(배명중)

▲플라이급

1위:이 석 봉(여수중)
 2위:김 봉 환(구월중)
 3위:김 수 연(광주체중)
 김 향 수(청주중)

▲밴텀급

1위:김 부 권(광주체중)
 2위:이 순 태(구월중)
 3위:김 기 성(재송중)
 김 덕 훈(성남서중)

▲페더급

1위:최 윤 섭(영남중)
 2위:이 도 화(공릉중)
 3위:안 정 일(한영중)
 이 규 원(부천동중)

▲라이트급

1위:김 차 섭(구월중)
 2위:강 성 권(서울체중)
 3위:김 인 동(풍생중)
 서 현 복(해동중)

▲L-웰터급

1위:강 종 웅(여수중)
 2위:허 길 용(함양중)
 3위:박 상 규(구월중)
 윤 지 원(부천동중)

▲웰터급

1위:하 태 호(배명중)
 2위:김 승 원(당곡중)
 3위:최 태 호(구월중)
 조 화 연(성남서중)

▲L-미들급

1위:신 진 구(광주체중)

2위:임 훈 택(오성중)
 3위:문 대 성(구월중)
 전 유 곤(영남중)

▲미들급

1위:방영선(배명중)
 2위:백휘진(성남동중)
 3위:나덕준(풍생중)
 양현진(부천동중)

▲L-헤비급

1위:안 용 진(공릉중)
 2위:임 병 문(경수중)
 3위:윤 홍 식(관인중)
 안 성 진(재송중)

▲헤비급

1위:강 훈(한성중)
 2위:심 윤 섭(부천동중)
 3위:김 동 길(해동중)
 김 정 민(자양중)

(여고부)

▲핀급

1위:강 선 경(인천체고)
 2위:양 소 희(천안여고)
 3위:은 혜 숙(김제상고)
 유 수 미(리라공고)

▲플라이급

1위:모 선 영(인덕공고)
 2위:진 용 순(광명상고)
 3위:김 혜 선(은광여고)
 서 미 라(인천체고)

▲밴텀급

1위:이 승 민(은광여고)
 2위:유 경 숙(인천체고)
 3위:황 태 경(경성여고)
 이 경 민(시온고)

▲페더급

1위:박 경 숙(은광여고)
 2위:서 연 화(천안여고)
 3위:박 계 회(배성여상)
 조 의 영(김제상고)

▲라이트급

1위:윤 명 숙(인천체고)
 2위:김 영 하(경성여고)
 3위:김 옥 님(배성여상)
 강 미 자(부안여상)

▲웰터급

1위:박 상 회(리라공고)
 2위:고 내 연(고양여중고)
 3위:강 지 회(소래중고)
 유 은 진(문산중고)

▲미들급

1위:이 용 화(영북중고)
 2위:김 영 회(덕소고)
 3위:라 명 숙(배성여상)
 유 원 이(임실고)

▲헤비급

1위:추 수 연(은광여고)
 2위:정 명 숙(혜성여고)
 3위:윤 현 정(문성여상)
 박 정 숙(김제북고)

(여중부)

▲핀급

1위:장 현 미(동인천여중)
 2위:이 혜 은(자양중)
 3위:이 승 의(용곡중)
 채 혜 경(영북중)

▲플라이급

1위:강 선 미(동인천여중)
 2위:문 은 숙(만수여중)
 3위:이 미 화(천안여중)
 최 영 아(자양중)

▲밴텀급

- 1위:이 은 옥(천안동여중)
2위:김 은 미(대원여중)
3위:고 승 자(중앙여중)
진 경 란(아주중)

▲페더급

- 1위:유 미 란(만수여중)
2위:이 순 희(대원여중)
3위:김 광 희(쌍문중)
서 명 숙(천안동여중)

▲라이트급

- 1위:이 선 영(쌍문중)
2위:박 선 희(경수중)
3위:김 연 주(만수여중)
최 미 란(영북중)

▲L-웰터급

- 1위:이 지 은(근영여중)
2위:정 현 주(전동중)
3위:함 진 화(영성여중)
신 지 아(영북여중)

▲웰터급

- 1위:채 수 진(공릉중)
2위:윤 진 주(가정여중)
3위:조 미 레(대원여중)
황 유 지(자양중)

▲L-미들급

- 1위:임 병 은(대원여중)
2위:김 수 정(천안여중)
3위:이 영 임(천안동여중)
곽 태 정(만수여중)

▲미들급

- 1위:정 경 선(대원여중)
2위:김 명 순(동인천여중)
3위:김 선 경(만수여중)

▲L-헤비급

- 1위:최 민 정(대원여중)

- 2위:최 화 수(동인천여중)
3위:권 혜 원(봉천여중)
원 종 애(자양중)

▲헤비급

- 1위:서 정 화(동인천여중)
2위:박 효 숙(대원여중)
3위:김 수 희(만수여중)
주 혜 련(만수여중)

제14회 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9. 28~29.
부산구덕실내체육관)

(단 체 성 적)

▲남자부 A조

- 1위:동아 대학교
2위:경희 대학교
3위:대한 체육 과학 대학
감투:한국 체육대학

▲남자부 B조

- 1위:인천 전문대
2위:대한 체육 과학 대학
3위:영진 전문대
감투:중앙 대학교

▲여대부

- 1위:대한 체육 과학 대학
2위:상명 여자 대학
3위:한국 체육 대학
감투:인천 전문대

(개 인 성 적)

- 최우수상:강창모(동아대)
우수선수상:김민정(체과대)
최정복(경희대)

- 감 투 상:용병호(인천전문대)
박정미(상명여대)
장 려 상:박종필(영진전문대)
지 환(목포대)
지 도 상:김우규(동아대)
강성철(체과대)

(남 자 A 부)

▲핀 급

- 1위:유성호(체과대)
2위:김건일(계명대)
3위:박로형(인천 전문대)
이종덕(세종 대학교)

▲플라이급

- 1위:김현웅(경희대)
2위:지재기(동아대)
3위:지환(목포대)
박채성(한체대)

▲밴 텀 급

- 1위:박기찬(동아대)
2위:박형식(한체대)
3위:서성교(한체대)
이 안호(경희대)

▲페 더 급

- 1위:강창모(동아대)
2위:정용진(경희대)
3위:이명철(동아대)
최창민(경원대)

▲라이트급

- 1위:박세진(경희대)
2위:최종국(동아대)
3위:김지용(인천 전문대)
윤정욱(경희대)

▲웰 터 급

- 1위:장종오(체과대)
2위:김광수(한국체대)

3위:신광수(한국체대)
임태규(청주대)

▲미 들 급

1위:최종복(경희대)
2위:이현석(동아대)
3위:장주동(청주대)
강병삼(한국체대)

▲헤 비 급

1위:김재경(동아대)
2위:박형태(체과대)
3위:성필용(동의대)
장홍수(명지대)

(남 자 B 조)

▲플라이급

1위:전재민(체과대)
2위:손현구(체과대)
3위:손천일(인천 전문대)

▲밴 덤 급

1위:박만석(인천 전문대)
2위:강철원(인천 전문대)
3위:최승호(인천 전문대)

▲페 더 급

1위:박순찬(인천 전문대)
2위:김철주(인천 전문대)
3위:노윤완(인천 전문대)
박상호(영진 전문대)

▲라이트급

1위:박종필(영진 전문대)
2위:최원영(체과대)

3위:손귀중(인천 전문대)
배동진(중앙대)

▲웰 터 급

1위:용명호(인천 전문대)
2위:권오열(영진 전문대)
3위:이수봉(체과대)
김진섭(인천 전문대)

▲미 들 급

1위:박성훈(인천 전문대)
2위:조진영(체과대)
3위:이한주(체과대)
손용석(영진 전문대)

▲헤 비 급

1위:김민철(체과대)
2위:이상동(인천 전문대)
3위:이성진(인천 전문대)
박상중(인천 전문대)

(여 자 부)

▲핀 급

1위:최인숙(인천 전문대)
2위:유수진(경희대)
3위:백종현(인천 전문대)

▲플라이급

1위:김민정(체과대)
2위:박영신(상명 여대)
3위:장이숙(상명 여대)
박은미(성신 여대)

▲밴 덤 급

1위:김은숙(체과대)

2위:양은정(성신 여대)
3위:추난울(한체대)
황은숙(상명 여대)

▲페 더 급

1위:박정미(상명여대)
2위:윤 희(한체대)
3위:김경숙(체과대)
이현화(경희대)

▲라이트급

1위:박정희(한체대)
2위:진혜운(경희대)
3위:김경애(체과대)
이영미(성신 여대)

▲웰 터 급

1위:김미영(체과대)
2위:이성미(상명 여대)
3위:이은주(한체대)
이미라(성신 여대)

▲미 들 급

1위:이선희(체과대)
2위:이은주(성신 여대)
3위:박혜영(경희대)
방경애(성신 여대)

▲헤 비 급

1위:박은주(상명 여대)
2위:최원화(인천 전문대)
3위:장 철(경희대)
심현숙(성신 여대)

세계선수권대회 대표팀 임원 · 선수 필승 다짐

The Korea National TKD Team Pledged
themselves to success of the 10th World TKD
Championships.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팀 단장으로는 이근수
전북태권도협회장이 선임되었다.

남녀팀 감독으로는 김대연 협회심판분과위원장,

이근우 부산협회 전무이사가 파견된다.

대표팀 임원들과 대표선수 16명은 지난 9월 16일에 상견례를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한민족체전에 참가한 태권도사범 환영만찬

KTA President Choi, Sae-Chang meeting with
Taekwondo Masters participated in Korean
Ethnics Sports Festival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축제인 제2회세계한민족체전이 지난 9월 12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세계각국에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온 태권도 사범 30여명도 한민족체전 참가를 위해 귀국했다. 대한 태권도협회의 최세창회장은 이들에게 환영 만찬을 베풀고 태권도 발전에 애쓴 공로를 치하했다.



체과대시범단 한민족체전 개막행사서 태권도 시범

Korea Sports Science College Taekwondo
Team Demonstrated the essence of taekwondo.

식후 문화행사에서는 체과대 태권도학과에 재학중인 300여명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민족무도 태권도 시범을 펼쳐보였다.

제3회 경희대 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7. 1~3, 국기원)

The 3th Kyunghee University President's Flag TKD Championships.

이번 대회부터는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해 각 학교 선수 중 체급당 2명으로 참가를 제한하였다.

총 73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팀의 실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여수고와 인천체고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경희대 김봉걸 부총장이 남고부 우승을 차지한 여수고에 우승 컵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7. 16~19, 국기원)

The 1st Korea Sports Science College President's
Flag TKD Championships.

타대회가 개인전 토너먼트에 의한 단체전
복합 방식이던 것과는 달리 통합 4체급에
대한 단체대항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승림고와 은광여고는 처음으로 수여된
단체전 우승기를 가져가는 기쁨을 맛보았다.



▲ 고병득학장의 대회사

제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 대회

(8. 18~24, 잠실실내체육관)

The 2nd Sports Minister's Flag Junior and Senior
TKD Championships.

총 27개교에서 1685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불꽃튀는 경쟁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리라공고(사진)와 풍생고가 남고부 동반우승을 차지했고, 은광여고가 여고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중고연맹 이유생회장이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 뛰면서 위력적인 오른발 돌려차기 성공

제1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국민학교대회

(7. 27~28, 여수진남체육관)

The 12nd Elementary School Sports Minister's Flag
TKD Championships.

지방의 태권도 발전을 꾀하기 위해 대회사상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75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년과 다름없는 참가규모를 보여주었다. 본 대회 우승의 영광은 경기용인국민학교와 서울강덕국민학교가 안았다.



▲ 남자부 단체입상



▲ 라이트헤비급에 출전해 계속 K·O승을 거두며 우승한 안병규(동명국)선수



▲ 여자부 단체입상

제14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학대회

(9. 28~29,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The 13th University Federation's Flag
TKD Championships.

이번 대회는 경기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손기술과 발기술로 구분된 격파발표회가
실시되어 태권도 기술과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남자부 경기에 있어서는 동아대, 경희대,
체과대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동아대가
우승하였고 여자부는 체과대가 팀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웃는 얼굴

만원 버스 속에서
주위를 둘러본다.
어쩌다 마주친 눈은
슬쩍 피한다.
어떤 눈은
나의 시선을 맞받아 끝까지 노려본다.
어떤 눈은
나의 시선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
어떤 눈은
장막만 내다보고
어떤 눈은
아예 감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나에게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젊은 어머니 등에 얹힌
아가의 얼굴만이 나를 보고
빙그레 웃는다.

버스에서 내려
햇빛 속을 걸으면서
나도 한번 빙그레 웃어본다.
아가처럼.

김윤성

1926년 서울에서 출생
1956년 제1회 한국문학상, 1972년 월탄문학상,
1980년 예술원상, 1981년 문학예술상 수상.
예총부회장, 문협부회장, 현대문학사 주간,
문학정신사 주간 등을 역임.
현재 예술원 회원(1981년 임명)

시집으로

《바다가 보이는 산길》 《예감》 《아가》
《자화상》 《돌의 계절》 《돌아가는 길》
등을 펴냄.

세계선수권대회 대표팀 임원·선수 필승 다짐

The Korea National TKD Team Pledged
themselves to success of the 10th World TKD
Championships.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팀 단장으로는 이근수 전북태권도협회장이 선임되었다.

남녀팀 감독으로는 김대연 협회심판분과위원장, 이근우 부산협회 전무이사가 파견된다.

대표팀 임원들과 대표선수 16명은 지난 9월 16일에 상견례를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한민족체전에 참가한 태권도사범 환영만찬

KTA President Choi, Sae-Chang meeting with
Taekwondo Masters participated in Korean
Ethnics Sports Festival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축제인 제2회세계한민족체전이 지난 9월 12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세계각국에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온 태권도 사범 30여명도 한민족체전 참가를 위해 귀국했다. 대한 태권도협회의 최세창회장은 이들에게 환영 만찬을 베풀고 태권도 발전에 애쓴 공로를 치하했다.



체과대시범단 한민족체전 개막행사서 태권도 시범

Korea Sports Science College Taekwondo
Team Demonstrated the essence of taekwondo.

식후 문화행사에서는 체과대 태권도학과에 재학중인 300여명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민족무도 태권도 시범을 펼쳐보였다.

제3회 경희대 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7. 1~3, 국기원)

The 3th Kyunghee University President's Flag TKD Championships.

이번 대회부터는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해 각 학교 선수 중
체급당 2명으로 참가를 제한하였다.

총 73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팀의
실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여수고와 인천체고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경희대 김봉걸 부총장이 남고부 우승을 차지한 여수고에 우승
컵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7. 16~19, 국기원)

The 1st Korea Sports Science College President's
Flag TKD Championships.

타대회가 개인전 토너먼트에 의한 단체전
복합 방식이던 것과는 달리 통합 4체급에
대한 단체대항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승리고와 은광여고는 처음으로 수여된
단체전 우승기를 가져가는 기쁨을 맛보았다.



▲ 고병특학장의 대회사

제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 대회

(8. 18~24, 잠실실내체육관)

The 2nd Sports Minister's Flag Junior and Senior
TKD Championships.

총202개교에서 1685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불꽃튀는 경쟁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리라공고(사진)와 풍생고가 남고부 동반우승을 차지했고, 은광여고가 여고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중고연맹 이윤택회장이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 뛰면서 위력적인 오른발 돌려차기 성공

제1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국민학교대회

(7. 27~28, 여수진남체육관)

The 12nd Elementary School Sports Minister's Flag
TKD Championships.

지방의 태권도 발전을 꾀하기 위해 대회사상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75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년과 다른 참가규모를 보여주었다. 본 대회 우승의 영광은 경기용인국민학교와 서울강덕국민학교가 안았다.



▲ 남자부 단체입상



▲ 라이트헤비급에 출전해 계속 K·O승을 거두며 우승한 안병규(동명국)선수



▲ 여자부 단체입상

제14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항대회

(9. 28~29,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The 13th University Federation's Flag
TKD Championships.

이번 대회는 경기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손기술과 발기술로 구분된 격파발표회가
실시되어 태권도 기술과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남자부 경기에 있어서는 동아대, 경희대,
체과대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동아대가
우승하였고 여자부는 체과대가 팀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